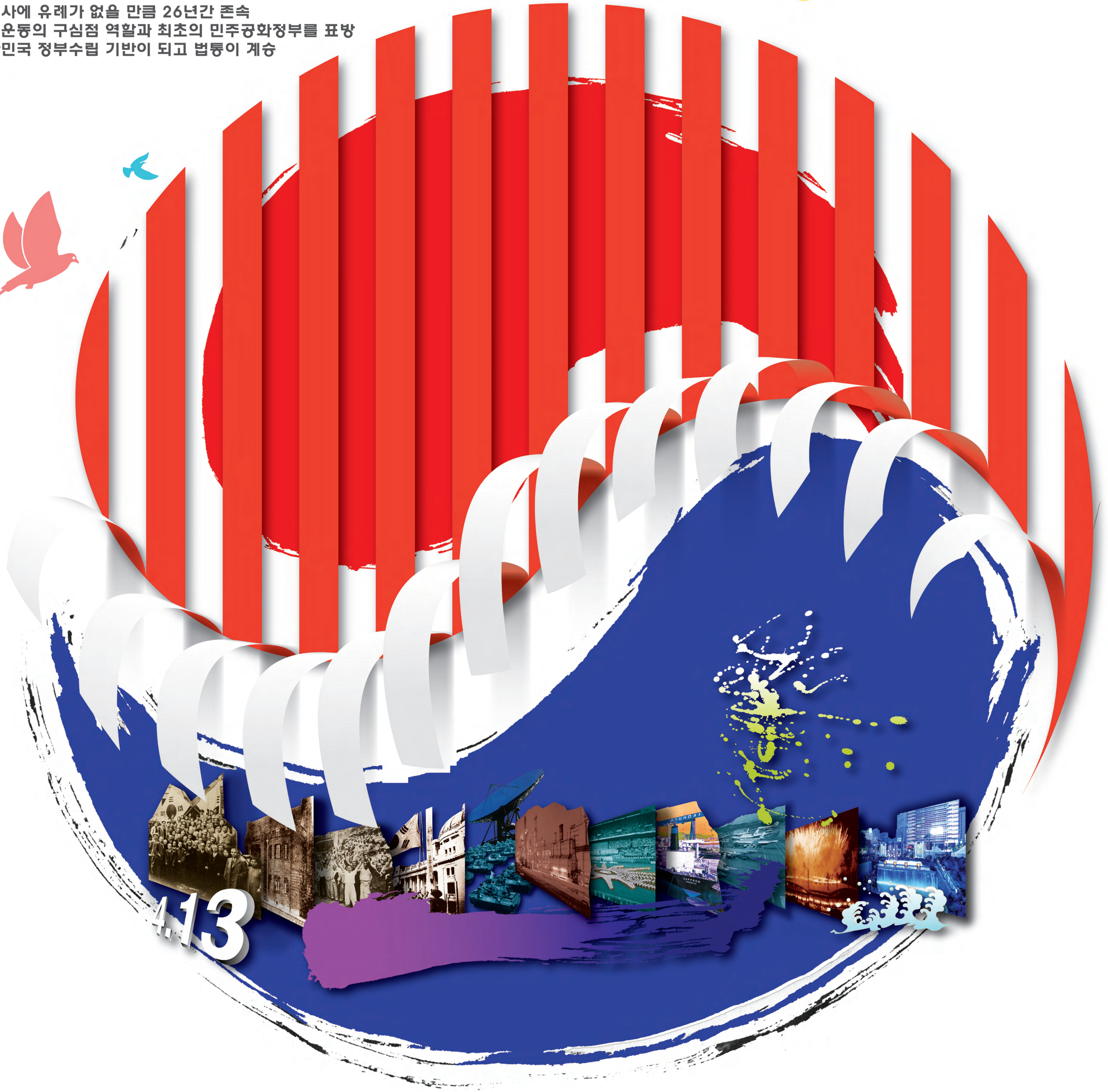
Weekly
공감
2009 04.08 No.06(통권 107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대한민국의 세계경영'
G20 리더십
상암벌의 12번째 태극전사 김연아
기획특집 임정 90돌… 나라를 다시 생각한다
청와대 각국 정상들의 선물 첫 공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26년간 존속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과 최초의 민주공화정부를 표방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반이 되고 법통이 계승

4.13

4월13일은 제9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전 국민 태극기 게양기간 : 2009.3.1～4.13

비정규직 법안 개정안의 효과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회 늘린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2년인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도록 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4월 중순쯤 국회에 제출된다.

이 같은 입법 배경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 경제위기가 고용위기로, 고용위기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켜 결국 기간제법의 위기를 몰고 오는, 이른바 '위기의 쓰나미'가 비정규직을 덮친 데 따른 것이다.

십수 년 전부터 세계화의 경제질서 하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당수 양산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과 복지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음으로써 이른바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을 형성하게 됐다. 비정규직법은 부당한 근로조건의 격차를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 및 파견근로의 사용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 등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방어적 인력정책에 의해 비정규직 중심의 구조조정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자체의 부족으로 기업에서 배제된 기간제 근로자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는 예외적 사정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올해 7월이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기간만료로 퇴직해야 할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면 일자리 자체가 급속히 감소해 퇴직한 근로자들이 대체 일자리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이른바 실업대란의 위기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기업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라는 고용기간의 절대적 상한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기간제 근로의 고용기간 상한을 정하고, 차별금지를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현행 기간제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고용기간 문제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량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예단이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 내지 대체 일자리 확보가 여의치 않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속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 G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 법학박사
- 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공익위원

CONTENTS

Weekly_2009.04.08_No.6(통권 107호)

08

58

12

발행일 2009.4.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주)삼화인쇄 **배포문의** 02-3704-9992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알림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 〈Weekly 공감〉 5호(4월 1일자)에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 특별 기고문' 전문을 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격려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국가위상 제고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01limsi(박종남)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경제 살리기와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일부 외국 언론의 부정적 편파 보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언론의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우리 국민의 경제심리 및 대외신인도에 일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통령은 3월 27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한국정부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을 소개하며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부실채권 처리 원칙이 합의되고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WSJ〉는 이 대통령의 기고문에 대해 "다른 어떤 정상들보다 구체적이고 통찰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입지를 당당하게 부각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공조를 여실히 보여준 것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하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략을 무력화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한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등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 대통령의 노력이 요즈음 자주 보이고 있는데, 그 노력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Weekly 공감〉 4호(3월 25일자) 기획특집은 '청년실업, 인턴이 희망이다'였습니다. 청년인턴제에 대한 찬반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턴제가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격려의 댓글을 한 편 올립니다.

행정인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앞으로 쭈욱 파이팅하세요~~~ _ cosmolns

●●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시상대에서 김연아 선수가 애국가를 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온 국민도 함께 울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감격의 글이 실렸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일본을 꺾고 1등을 했다! 장하다! 대한의 딸아! 정말 장하다!
야구에서 일본에 진 아쉬움을 일거에 날려버렸다! 계속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_ seoullth(이태호)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글이 선정된 독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최근 한국 국가대표 야구팀이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국위를 떨친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소개합니다.

운동선수 병역특례를 은퇴 이후 사회봉사로

kiyoung75(김기영)

저는 육군병장 제대하고 회사 다니고 있지만 박찬호 등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에 찬성합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활약하고 코리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외교관 수백명이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병역면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스포츠나 예능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공헌을 인정받으면 병역을 최장 40세 이후, 혹은 은퇴 이후로 연기시켜주고 3년가량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선수 개인은 은퇴할 때까지 마음 놓고 운동하고 국가로 보면 국위선양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박찬호 선수가 은퇴 후에 한국에 돌아와 제주도에서 어린이 야구교실을 3년간 한다든지, 추신수 선수가 은퇴 후에 부산에서 리틀야구단 코치를 하면 병역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고 병역면제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때를 놓치면 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자들이 은퇴 이후 고액연봉 코치를 못한다고, 아니면 코치 인생이 조금 늦어진다고 이 제도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Weekly 공감〉 4호(3월 25일자)의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를 알려드립니다.

가로 1 경인운하 2 독수리 3 이치로 4 브랜드

세로 5 김인식 감독 6 하이브리드 7 로드맵

당첨자

송재하(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이돈삼(광주시 북구 중흥3동)

이송이(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조규봉(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홍경석(대전시 중구 산성동)

당첨된 독자분께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공감 퍼즐

■	1		■	2	
3	■	■	4		■
5	6	■	■	7	8
■	9		■	■	
10	■	■	11	12	■
13			■	14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4월 17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가로

1. 원래는 수련의 과정의 의사를 이르는 말. 요즘은 일반 회사에서 정규 신입사원으로 뽑기 전에 실습을 거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 OO제도는 많은 청년들에게 취업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 선로 아래에 까는 나무나 콘크리트로 된 토막. 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OO 균열 원인과 관련해 5월 초 합동조사단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4. "대한민국의 목표는 선진OO국가 건설입니다."

5. 동서남북 네 방위.

7. 서로 이기려고 다투며 덤벼듦.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OO을 벌이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곳. 국제도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11.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 교수는 "한국 경제에 혜택이 많은 한미 FTA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 한국이 먼저 OO해서 책임을 미국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3.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환경도 배려하고 건강도 챙기는 이동수단.

14. 남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OO정책. 'Weekly OO.'

세로

2. 우리가 잘 몰랐던 청와대 안의 문화유적 중 하나.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는 뜻을 지닌 1905년에 세운 건물.

3. "정부와 한국노총 등 OO민정은 지난 2월 23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6. "힘내라 대한민국! OO · 통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8.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떨치고 돌아온 우리 야구대표팀이 자랑스럽습니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전에서 북한을 1 대 0으로 이긴 한국 OO대표팀도 그렇습니다.

10. 오랫동안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담을 끼고 길게 늘어서던 OO신청 행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OO면제 프로그램을 성사시켰기 때문입니다.

12. '공사를 다 마침'을 이르는 말입니다.

※ 문제 중 일부는 〈Weekly 공감〉 4호(3월 25일자)에 힌트가 있습니다.

돌고 도는 세상 찬바람 견디면 신바람이 온다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 부는 쪽으로
힘차게 뛰어야 한다
옹골차게 뛰어야 한다
나른한 일상에 젖어
절망하는 그대여

아득하면 아득할수록
서글프면 서글플수록
온 가슴 다 풀어헤치고
뛰고 또 뛰어라

그대의 심장박동으로
바람개비를 돌려라.

사진 · 정경택 기자 / 글 · 여태전의 詩 〈바람개비〉에서

Canon EOS-1 Ds Mark II EF 324mm F22 1/20초.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안 바람의 언덕.

‘스탠드 스틸’ 실천 방안 제안 전 세계가 주목

“경제위기 극복의 탁월한 해결사”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다녀왔다. 4박 5일 일정의 이번 방문기간 동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가진 이 대통령의 방영(訪英) 성과와 의의를 짚었다.

제2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월 31일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영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 대통령은 4월 4일까지 런던에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타파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경제위기 해법 도출의 조율사 역할을 자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과 세계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정상회의 참석국가들과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제기하고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스탠드 스틸(Stand-Still · 새로운 무역장벽 금지)’ 원칙의 철저한 준수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무역과 금융 부문의 보호주의 배격 원칙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스탠드 스틸 원칙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은 물론 스페인, 네덜란드, 태국, 에티오피아 등 24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워싱턴의 제1차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시장 안정 확보, 국제금융체제 개편 및 금융규제 문제 개선 등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무역, 금융 등 분야에서 보호주의의 대두를 방지하고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케빈 러드 호주 총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

동아DB

영국 총리 주최 만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G20 정상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자로 고든 브라운 총리를 3월 31일 영국 총리관저에서 만나 양국관계 발전방안,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방안, 기후변화 대처방안, 한·유럽연합(EU)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영국이 수교 이후 정치, 경제·통상,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G20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이번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앞으로 충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성사시켜 양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양국 청소년들의 방문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종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인 영국의 청년이동제도(Youth Mobility Scheme)에 우리나라가 조속히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으며, 고든 브라운 총리도 한국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갖고 현안 논의

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엔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 경제·금융위기 대처, 북한문제, 한일관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국제 금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부실자산 정리 등에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동안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 간 공식 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신뢰를 다져온 양 정상은 회담에서 다시 한번 친분과 우애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사정을 의식해 확고한 경제 살리기 메시지를 보내는 데 머뭇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런 우려 속에서도 러드 총리는 국내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도자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러드 총리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전 세계 정상 중 부실자산 처리에 관해 가장 확실한 해법을 갖고 있는 실력가"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버킹검궁에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영국총리 관저를 방문해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 진행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주최 리셉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즉석 회동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최근 경제위기를 위해 이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에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 어려운 위기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이 미국과 세계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4월 2일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은 금융위기 극복, 한미동맹, 북한문제, 범세계적 협력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재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감을 나타냈다.

양 정상은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계속 추구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엄정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미 FTA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월 16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최대 케이블 경제뉴스채널인 CNBC의 마리아 바티로모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나라가 공조하고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영국 유력인사들과 한국 관련 주요 단체 대표들을 접견했다. 4월 1일 이 대통령을 영접한 힐러리 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장관과 파반 수크데프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수석연구원은 각각 "한국의 녹색뉴딜정책은 저탄소정책의 세계적 표본이다" "한국의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권장하는 5대 역점사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G

글·김지영 기자

1 4월 2일 오후(한국시각)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정상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2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런던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의장의 양자회의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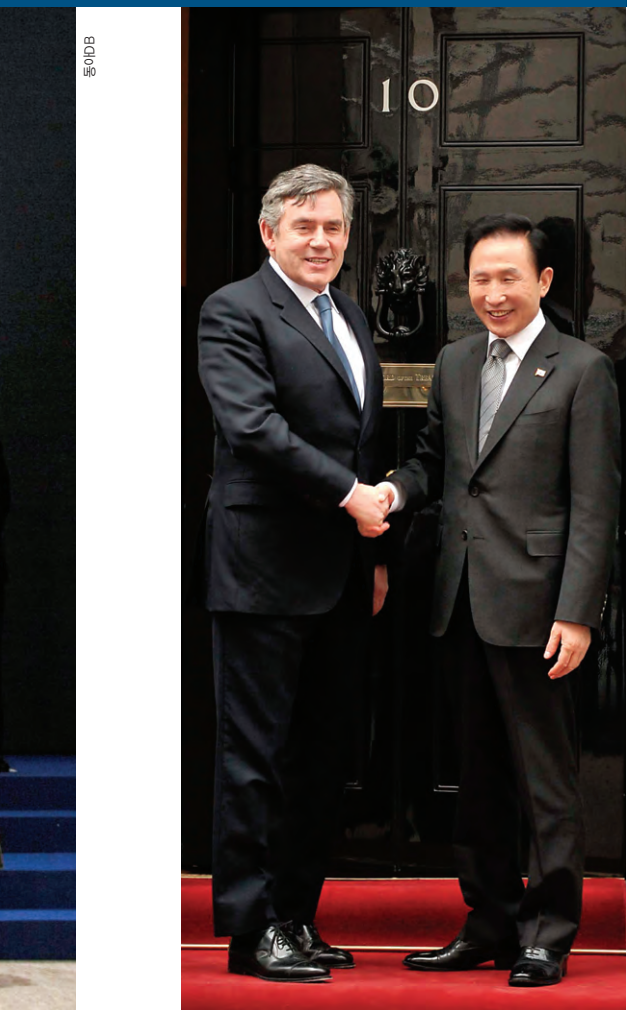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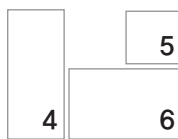
3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일 새벽(한국시각) 랜드마크 호텔에서 미국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 활동

경제대통령, 세계를 경영하다

제2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앞줄 맨 왼쪽)을 비롯한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DB

제2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영국 런던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미국 경제전문 뉴스채널 CNBC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각국 정상과의 연이은 회담과 G20 정상회의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이 대통령의 눈부신 활약상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동아DB

4 이명박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다우닝가 10번지의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관저를 방문했다.

5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일 저녁(한국시각) 이 대통령 숙소인 랜드마크 호텔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만나 회담을 가졌다.

6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일 숙소인 랜드마크 호텔에서 데이비드 카메룬 영국 보수당 당수를 접견하고 있다.

동아DB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서로 배려하고 사랑받는 나라 되어야죠"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1차 보고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비전을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어윤대 위원장을 만나 그 배경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 고려대 총장, 한국경영학회장 역임
•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2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설치된 기구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64)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을 포함한 13명의 장관급과 민간 전문가 47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의 홍보 노하우를 잘 아는 대기업의 핵심인력도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월급을 전혀 받지 않는 비상근직이지만 어윤대 위원장은 몹시 바쁘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한다. 그 바쁜 일과 시간을 비집고 들어가듯 4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백병원 옆에 있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사무실에서 어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막 끝낸 참이었다. 최근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김연아 선수 이야기부터 꺼냈다.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본이 변해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가가 김연아 선수를 위해 무엇을 해줬느냐 반성하게 됩니다. 선수 개인과 가족은 노력하지만 우리나라 체육시스템이 세계적인 스타를 키울 환경과 배경을 갖췄느냐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괴감을 느껴요."

첫 질문부터 예상이 빗나갔다. 어 위원장은 총장 시절 고려대를 '막걸리 민족 대학'에서 '와인 글로벌 대학'으로 격상시킨 '브랜드 연금술사'가 아닌가. 그런 그의 입에서 김연아 선수와 관련하여 '뷰티풀 코리아'라든지 스토리텔링산업에 접목시켜 뮤지컬이나 영화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술술 나올 줄 알았는데 '반성문'부터 먼저 나왔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브랜드를 홍보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에서 사랑받는 나라로 가야 하는데 정말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본이 변해야 합니다. 요즘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실체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선진 사회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 다문화사회에서 다른 민족 문화나 종교를 존중하고 세계적 표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가시적 성과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위원장은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역할을 전략이나 목표 달

성보다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는 데 두고 있었다.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일까. 지난 3월 17일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는 1차 보고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비전을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을 비전으로 정한 것일까.

"그동안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성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는데 6·25전쟁 이후 급속히 성장하게 되면서 어느 날 깨어보니까 잘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잠자기 전에 못 살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잘살고 있는데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평균 수준만 되더라도 배려하는 국가로 대접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러지 못했거든요. 6·25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참전한 에티오피아에 대해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었습니까. 우리 경제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을 후진국에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2015년까지 ODA 자금을 지금보다 3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5월쯤에는 후진국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도와주겠다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죠."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설정한 비전은 비록 우리나라의 '약점'에서 출발했지만 슬로건은 '장점'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슬로건은 주로 관광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을 홍보하는 하부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dvanced Technology & Design Korea'는 어떨까요."

'코리아디스카운트' 줄여나가는 데 집중

어 위원장이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을 앞세우는 데는 우리나라 제품이 품질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진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이 국가의 품격, 국격(國格)을 높이는 일인데 한두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 제품이 코리아디스카운트랄까 저평가되고 있어요.

지난 1월 코트라 조사에 의하면 한국 제품이 30% 저평가되고 있어요. 이것을 3% 포인트쯤 끌어올려 27%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3대 기업의 영업이익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압축성장을 통해 달성한 기술이나 디자인 능력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줄여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식경제부, 코트라와 같이 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윤대 위원장이 4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주최 국제자문포럼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어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시집온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느낌을 고국에 그대로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 출신 아내들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남편들을 제대로 교육해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남편이 외국 출신 아내를 사랑하고 잘 대해주면 시부모님을 잘 모실 뿐 아니라 친정에도 좋은 소리를 하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위원장직을 맡으라고 해서 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되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어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브랜드위원회 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은연중 내비쳤다. 사업비가 전혀 없는 위원회가 잘 굴러가는 것도 이 때문일까.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활동했는데 그때 이미 대통령께서는 매킨지에 국가브랜드위원회 활동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켰어요. 국가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달에 한 번씩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는 국격이라는 큰 그릇을 채우기보다는 한두 군데를 선택해서 집중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 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방향성을 정하는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마지막으로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을 묻자 어 위원장은 입가에 웃음을 띠며 "외국인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G

글 · 안기석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가
시상식 후 '태극기 세리모니'를 펼치고
있다.

태극기 보며 연아도 우리도 눈물 흘렸다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세 번의 도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
피겨 소녀에서 피겨 여왕으로 탄생한 순간 시상대에 선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부상도, 어려운 여건도 연습벌레였던 김연아의 도전과 승리를 막을 수 없었다.

13년 전 조그마한 얼음이 마냥 좋다던 소녀. 만화영화 대신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비디오를 좋아한 소녀. 그 소녀가 '피겨 여왕'이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을까.

김연아(19 · 고려대)는 3월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끝난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한국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2006~2007시즌 이후 세 번째 도전 끝에 얻은 값진 우승이었다.

이번 우승으로 김연아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됐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위해 제대로 된 빙상장 하나 없던 한국에서 그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하루에 6번, 1년에 1800번.

김연아가 1년에 휴일을 뺀 300일 동안 점프를 하면서 넘어진 횟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 포기하고도 남았을 고통이다. 김연아는 그만큼 지독한 '연습벌레'다.

김연아가 주니어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2006년 5월. 연습을 너무 많이 한 탓에 4개월은 신어야 하는 스케이트화가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다. 매주 새로 스케이트화를 사는 데 지친 김연아의 어머니 박미희 씨가 "연아는 은퇴하기로 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지독한 연습과 시기적절한 투자

결국 그해 12월 그랑프리파이널 대회에서의 첫 우승 뒤 스케이트화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나 위기를 모면했다.

주니어 시절 김연아를 가르쳤던 신혜숙 코치는 김연아를 지독한 '연습벌레'로 기억한다. 신 코치는 "트리플 러츠를 하도 많이 뛰어서 헤아려본 적이 있다. 하지만 65회까지 헤아리고 포기했다. 다른 선수들은 같은 시간에 그 반도 못 뛴다"고 회상했다. 땀 흘린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이제 누구나 잘 안다.

노력 이외에도 김연아의 성공 뒤에는 시기적절한 투자가 한몫했다.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돈'으로 고생을 한다. 세계선수권 등 해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입 등 여행경비를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또 코치 비용 등으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선수도 많다.

김연아도 한때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 중

연합

〈죽음의 무도〉 연기를 펼치고 있는 김연아.

연합

1 자신의 점프에 만족해하는 김연아. 2 우승이 확정되자 환호하는 김연아와 브라이언 오서 코치. 3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와 은 · 동메달 선수들.

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연아의 아버지도 외환위기 당시 직격탄을 맞아 은퇴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국제대회 우승 이후 김연아의 부모는 딸의 장래성을 내다보고 과감한 투자를 결심했다.

또 2006년 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시기적절한 매니지먼트사와 스폰서사와의 계약도 김연아가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디를 가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김연아

이번 대회에서 김연아가 우승을 차지한 뒤 많은 언론들은 김연아의 200점 돌파를 큰 화제로 삼았다.

여자 싱글 종목에서 200점 돌파는 심리적 한계선이었다. 꼭 200점이 100점 만점인 것처럼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김연아가 그것을 세계 최초로 깨뜨렸다. 2002~200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도입한 신채점방식(뉴저징 시스템)에서 처음으로 200점대를 돌파한 것이다. 김연아는 아무도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선을 최초로 넘었다. 신채점방식이 도입된 뒤 190점대에 접어든 것은 2003년 11월 미국의 사샤 코언이 기존 최고점이던 178.77점을 깨고 197.35점을 얻으면서부터다.

첫 190점대는 2년 만에 깨졌다. 2005년 그랑프리 5차 대회 러시아컵에서 이리나 슬러츠카야(러시아)가 198.65점을 기록했다. 2006년 12월 김연아의 동갑내기 라이벌인 아사다 마오(일본)가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서 199.52점을 얻으면서 200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꿈의 200점'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여자 싱글에서 200점은 넘을 수 없는 점수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모든 예상을 비웃듯 김연아는 우승과 함께 200점을 돌파했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심판위원인 이지희 대한빙상경기연맹 피겨 부회장은 "신채점방식이 도입되고 나서 그동안 선수나 심판들이 아무도 깨지 못했던 심리적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작 신기록을 달성한 김연아는 "점수는 별로 신경 쓰

Queen 연아

4 로스앤젤레스 빙상장의 김연아 팬들. 5 고려대 학생증을 전달받고 있는 김연아. 6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전 남북한 간 경기가 열린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김연아.

지 않았는데 막상 200점대를 넘으니까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담담히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연아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김연아의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때는 평소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일본 기자들은 김연아의 인터뷰 내용을 알기 위해 한국 기자들을 밀착 취재하는 풍경까지 연출했다.

"사인 공세에 인터뷰 30분 지각했어요"

한 일본 기자는 필자에게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까지 김연아에 관한 기사 연재를 부탁한다. 김연아는 일본 스포츠 지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때만 하더라도 한국 기자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유럽과 미국 기자들도 한국 기자들에게 유난히 친절을 베풀었다. 이 또한 김연아의 인기와 중요도를 보여주는 일부분이다.

프랑스의 한 기자는 "유럽 피겨계에서 김연아의 인기는 대단하다. 피겨 팬의 절반 정도가 김연아 팬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다. 그만큼 유럽 기자들도 김연아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의 인기는 빙상장 안팎을 가리지 않았다. 3월 29일 우승을 차지하고 시상대 위에 올라선 김연아는 누구보다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시상식 뒤 김연아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바람에 예정된 공식 기자회견에 30분이나 늦기까지 했다. 이미 2, 3위를 차지한 안도 미키(일본)와 조애니 로셰트(캐나다)의 기자회견은 끝난 뒤였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김연아가 기자회견에 늦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위와 3위가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1위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빙상장으로 돌아가 팬들에게 사인을 해줬어요. 사인을 하다 보니 이왕 시작한 건데 싶어 팬들 모두에게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늦었네요.(웃음)" G

글 · 김동욱 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

Queen 연아

연합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김연아와 브라이언 오서 코치.

연아를 여왕으로 만든 사람들

코치, 안무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

'피겨 여왕' 김연아가 시상대에서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흘릴 때 관중석 한쪽에서 소리 없이 그와 함께 눈물을 떨어뜨린 사람들이 있다. '7분의 영광'을 위해 김연아와 함께 고락을 같이한 이들이다. 원석에 가까웠던 김연아는 이들의 땀과 열정을 매개 삼아 보석으로 다시 태어났다.

●● 브라이언 오서 코치

1980년대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계를 풍미했던 브라이언 오서 코치를 빼고는 김연아를 말하기 힘들다. 2006년 오서 코치를 만나기 이전의 김연아가 '교과서 점프'를 무기로 삼는 '테크니션'이었다면, 오서 코치를 만난 후 김연아는 '예술연기의 달인'으로 새로 태어났다. 주니어 시절 출전한 국내 대회에서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던 김연아는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기로 여자 싱글 선수 중 유일하게 8점대 연기 점수를 받았다.

오서 코치 자신도 김연아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선수 시절 초반에는 '미스터 트리플 악셀'이라 불릴 정도로 점프 기술이 유명했지만, 후반에는 예술연기로 더 이름을 떨쳤다.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일본)의 라이벌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도 오서 코치. 그는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서 브라이언 보이타노(미국)와 우승을 다퉜는데, 남자 싱글 사상 최고의 명승부로 꼽힌다. 김연아는 오서 코치에 대해 "아사다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내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덕분에 나는 마음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다"면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다.

●●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과 의상 · 편곡 전문가들

김연아의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은 늘 유쾌하다. 그의 '해피 바이러스'는 김연아에게 금방 전달됐다. 윌슨을 만나기 전 김연아는 '인터뷰하기 어려운 스타' 가운데 한 명이었다. 대답은 거의 단답형이었고 카메라 앞에서도 잘 웃지 않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들은 윌슨 코치에게 "김연아를 '행복한 스케이터'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윌슨 코치는 영화관, 공연장을 김연아와 함께 누비며 감춰져 있던 김연아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안무가로서 윌슨은 천재적이다. 주니어 시절 김연아를 가르친 신혜숙 코치는 그의 안무에 대해 "윌슨 코치의 안무는 허를 찌른다. 전혀 맞지 않을 것 같던 선율과 안무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고 평했다. 특히 이번 시즌 <죽음의 무도>와 <세

헤라자데〉는 안무가 압권이라는 평.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가 세계신기록을 세운 것을 두고 피겨 전문가들은 “잘 짜인 안무와 이를 탁월하게 해석한 김연아의 시너지 효과”라고 입을 모은다.

김연아가 무대에 서는 시간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프로그램을 합쳐 7분이 채 안 된다. 그는 이 시간 동안 의상, 안무, 연기 등 모든 것이 어우러진 완벽한 무대를 선보여야 한다. 이를 돕는 것이 피겨 음악 편곡 전문가와 의상 전문가다. 야심 차게 올 시즌을 준비하던 김연아는 〈죽음의 무도〉와 〈세헤라자데〉 두 곡을 배경음악으로 고른 뒤 윌슨에게 소개받은 캐나다 디자이너와 서울의 윤관의상실에 각각 의상을 의뢰했다. 탁월한 그의 선택은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극찬을 불렀다. 지난해 10월 김연아가 미국에서 열린 ‘스케이트 아메리카’에 출연했을 때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김연아의 의상은 우아하고 훌륭하고 화려했다. 단연 최고의, 진짜 드레스였다”고 칭찬했다.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가 세계신기록을 세운 것을 두고 피겨 전문가들은 “잘 짜인 안무와 이를 탁월하게 해석한 김연아의 시너지 효과”라고 입을 모은다.

김연아가 〈죽음의 무도〉를 연기하는 시간은 고작 2분 40초 안팎이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원곡은 7분가량의 긴 곡. 김연아의 연기와 함께 끊기는 느낌도 없이 음악이 끝나는데 나머지 4분 20초는 어디로 갔을까. 대부분의 선수들은 원곡을 부분부분 발췌, 편집해 경기에 사용한다. 피겨 음악에는 뮤지컬처럼 기승전결이 있고,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안무가는 편곡 전문가에게 곡 편집을 의뢰한다. 미셸 콴은 30여 명의 편곡가와 작업했고, 아사다 마오의 코치 타티아나 타라소바는 20여 명의 편곡가를 고용했다. 김연아는 올 시즌 윌슨이 소개한 새 편곡가에게 의뢰해 빼어난 연기를 음악으로 뒷받침했다.

●● 어머니 박미희 씨와 IB스포츠

김연아 뒤에는 그림자처럼 그의 어머니 박미희 씨가 함께한다. 그저 스케이팅을 좋아하는 팬에 지나지 않던 박 씨는 김연아를 키워내면서 피겨 전문가가 다 됐다. 스케이트 부츠가 맞지 않아 고생할 때는 직접 날을 뜯어 조이고, 부츠를 분해해 조립하면서 부츠에 통달했다. 박 씨는 “연습 링크에서 선수들의 모습만 봐도 오늘 누가 우승할지 감이 온다”고 말할 정도로 베테랑이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치보다 낫다”고들 한다. 김연아가 지금까지 훌륭한 코치들을 만나 좋은 환경에서 스케이트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힘이 크다. 똑 부러진 성격으로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코치와 세세한 점을 조율하기 때문에 잡음이 덜 생기는 편이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2007년 5월 김연아와 손을 잡은 뒤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각종 민원을 해결한다. 오랜만에 나타난 ‘대형 스타’에게 끊임없이 몰려드는 미디어를 정리하는 일도, 선수의 주 수입원인 CF와 후원 계약을 관리하는 일도 IB스포츠의 일이다. 박 씨는 “IB스포츠가 일을 덜어줘 연아와 나는 스케이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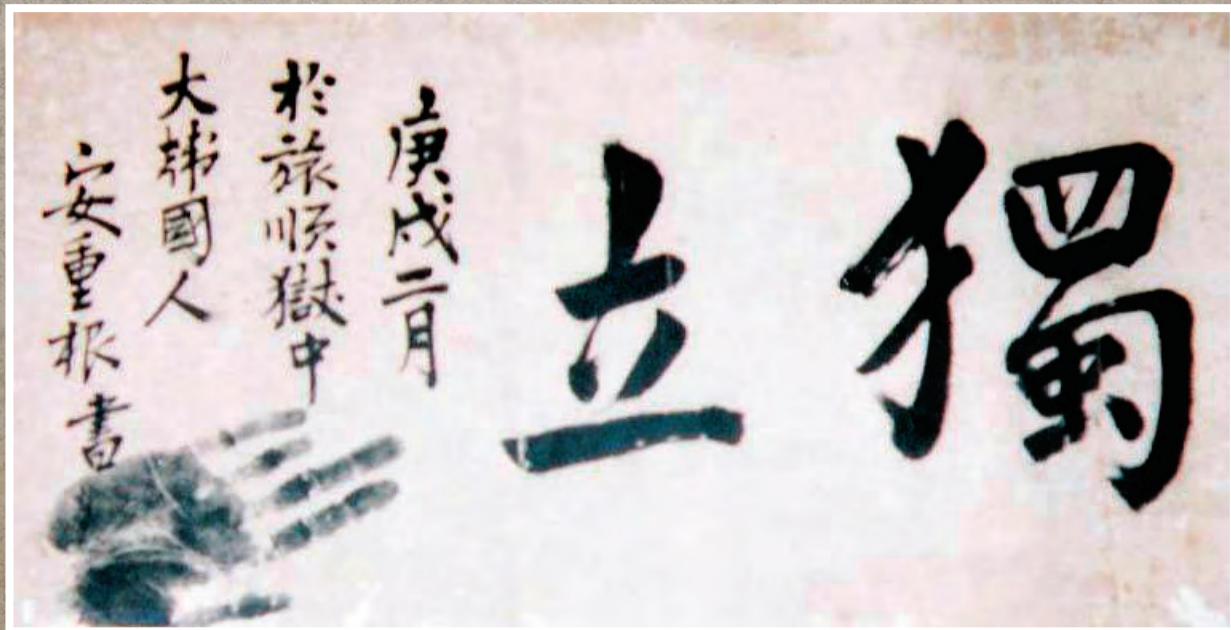
글 · 온누리 중앙일보 스포츠부 기자

1 캐나다 전지 훈련 당시 김연아와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
2 ‘그림자 뒷바라지’를 해온 어머니 박미희 씨와 김연아.
3 화환을 목에 건 김연아와 아버지 김현석 씨.

같은 장소, 다른 세대. 그래도 함성은 같았다. 1945년 김구 주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을 맞아 환국하기 전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였던 중국 충칭

90년이 흘러도 대한사람 대한으로

연화지 청사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2005년 그들과 다른 세대들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같은 장소에서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재현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년이자 그 모태가 된 3·1운동 90년, 그리고 안중근 의사 의거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땀과 피와 희생을 통해 '쟁취'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독립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져보자.

숭모회 등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온 안중근 의사의 친필유묵 '獨立'(독립).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임시정부 27년의 의미

대한민국의 뿌리를 다시 생각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지도자들이 더욱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국내외 여러 곳에 있던 임시정부를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한 것이다.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외국에 나가면 으레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이다. 2000년대를 사는 우리 국민 가운데 "I' m from Korea"라고 대답하는 데 주저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간을 거슬러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으로 돌아가보자.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낯선 외국인이 일제강점기 대한국인(大韓國人)에게 말을 걸어왔다.

"Where are you from?"
"…."

나라 잃은 설움을 당해보지 않고 그 심정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마는 자신의 내셔널리티(Nationality)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주는 참담함은 미뤄 짐작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올해로 꼭 90주년이 됐다. 임시정부 수립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모태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이전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제국'이었다. 대한제국은 제국(帝國), 즉 황제 중심의 전제군주제 국가였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던 시기에 독립운동

가들은 우리나라가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제군주제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원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칭을 지을 때 민국(民國), 즉 국민의 나라라고 지은 데서도 알 수 있다.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명칭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 최초의 민주공화 정부였다. 우리 겨레는 독립운동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주권국가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 만약 임시정부가 조선왕조나 고종이 선포한 대한제국을 전신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임금'이나 '황제'를 모시고 사는, 피선거권은 물론 참정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백성'에 머물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였고,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됐다.

필연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1918년 1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열린 파리강화회의에서 제창된 민족자결주의는 세계의 억압받는 민족들에게 자극제가 됐다. 일본의 식민지 상황에 놓여 있던 우리 민족은 한민족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상정되고 겨레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할 필요를 느꼈다. 1919년 전국적으로 3·1독립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된 배경이다.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운동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 네루가 옥중에서 딸에게 쓴 〈세계사 편력〉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짓밟혔다. 일본은 처음 얼마 동안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으나, 곧이어 나쁜 속셈을 드러냈고 조선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줄기차게 계속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3·1운동을 비롯한 독립만세운동이었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맨주먹으로 적에게 저항하며 용감하게 투쟁했다.

3·1운동은 조선 사람들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다, 일본 경찰에 잡혀 수없이 죽어가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뜻깊은 독립운동이었다. 그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순국했다. 일본인에 억눌린 조선의 역사는 실로 쓰라리고 어두운 암흑이었다. 조선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곧장 대학을 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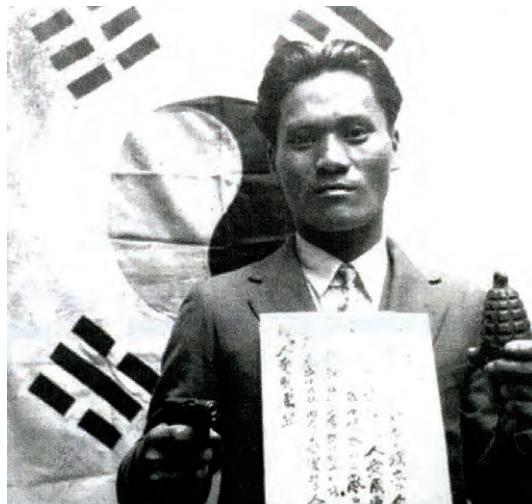
3·1운동이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천명했다면 그 다음 과제는 당연히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겨레의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지도자들이 더욱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국내외 여러 곳에 있던 임시정부를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한 것이다.

임시정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영토 밖에서 임시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로, 그리고 입법부인 임시의정원은 국회가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간 정부 조직을 유지한 채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펼쳤다. 이는 식민지 역사가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고난의 이동, 변치 않은 조국 독립의 꿈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대부분 상하이(上海)에 있었다고 기억하는 국민이 많다. 하지만 광복 직전 임시정부는 충칭(重慶)에서 5년을 보냈다. 상하이에서 13년, 그리고 충칭에서 5년을 뺀 나머지 기간은 길고도 힘든 이동 시기였다. 이 시기는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고난의 시기였다고 한다.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이었다. 임시정부는 윤 의사가 상하이 훙커우(虹口)공원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폭탄을 던진 의거 이후 긴급히 항저우(杭州)로 피신했다. 이후 중국 내륙 지방인 전장(鎮江)에 자리 잡게 되고, 주요 요인들은 중국정부가 위치한 난징(南京)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임시정부 관련 기록물들.

1946년 6월 16일 임시 특별열차 '해방자호'에 실려 서울역에 도착한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동생 고 윤남의 선생이 들고 가는 모습. 뒤에 백범 김구 선생이 보인다.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공원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폭탄을 던진 의거 이후 긴급히 항저우로 피신했다.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는 신채호 선생 등 무소속 독립운동가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 수여할 예정이다(왼쪽부터).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로는 그해 11월 창사(長沙)로 이동했고, 1938년 다시 광저우(廣州)로, 그해 10월에는 버스와 배를 이용해 다시 류저우(柳州)에 도착했다. 193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류저우를 떠나 치장을 거쳐 충칭으로 향한다. 상하이를 떠나 충칭에 도착하기까지 8년이 넘는 기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 정정화 선생의 〈장강일기〉 일부다.

"기차에서 사탕수수 밭까지는 불과 몇 걸음 사이였지만 하늘에서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총알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무슨 정신으로 기차에서 내려 밭까지 뛰어가 몸을 숨겼는지 모르겠다. 건장한 청년 10여 명이 배에서 내려 밧줄을 배에 묶고는 강변을 따라 그 밧줄을 끌고 올라갔다."

독립운동가들은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독립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다. 특히 임시정부 이동 기간에 장차 광복군으로 발전할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를 만들고 시가행진과 문화 공연 등으로 일본과의 전쟁에 지친 중국인들에게 힘을 불어넣기도 했다.

임시정부 좌우 대통합 달성이 주는 교훈

식민지 해방사에서 정부 조직으로 27년이 넘도록 해방운동을 전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기념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 정부를 채택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다. 좌우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 끝에 충칭에서 좌우통합 정부의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다.

민족문제연구소 신명식 기획이사는 "임시정부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좌우통합 정부를 구성했다는 점"이라며 "서로 힘을 합하기 어려워 보였던 좌우 진영에서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손을 잡았다는 것은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 비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좌우로 나뉘었던 독립운동 진영의 대통합을 달성한 사실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South? or North?"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이 되도록 대한국인(大韓國人)이 외국인에게 내셔널리티를 설명하기 위해 꼬리표처럼 "South? or North?"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시정부가 꿈꿨던 진정한 독립은 여전히 미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G

글 · 구자홍 기자

서울에서 찾은 임시정부의 발자취

윤봉길 기념관, 백범기념관, 도산공원 등 곳곳에 자리잡은 임정의 기록들

임시정부 반석 된 윤봉길 의사의 양재동 매헌기념관

"농사는 천하대본이라는 말은… 억만년을 가고 또 가도 변할 수 없는 대진리입니다…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 네거리 농업박물관 앞에 서 있는 대형 돌비석에 새겨진 <농민독본(農民讀本)>의 한 구절이다. 이 <농민독본>을 저술한 사람이 바로 매헌 윤봉길 의사다. 흔히 윤 의사는 1932년 중국 상하이 훙커우공원 의거의 주인공으로만 기억되지만, 그는 청년 시절 고향에서 농촌 계몽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운동을 벌였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에는 '매헌 윤봉길기념관' 이 있다. 1988년 문을 연 이 기념관에는 <농민독본>을 포함한 각종 서책류와 서한, 의거 당시의 소지품 등이 전시돼 있다. 기념관 1층에 들어서면 왼쪽 벽에 훙커우공원 의거 장면이, 오른쪽 벽에는 농촌에서 배움의 길을 여는 윤 의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1908년 6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윤 의사는 1918년 덕산 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식민지 교육을 거부하고 자퇴해 한학을 공부했다. 윤 의사는 19세 되던 해인 1926년부터 고향에서 농촌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야학 교재로 <농민독본>을 집필했다.

농민단체를 만들어 계몽운동과 민족운동으로 넓혀가고자 했던 윤 의사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1930년 3월 더 큰 뜻을 품고 집을 나서 이듬해 5월 우리 임시정부가 있던 상하이에 도착했다. 윤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 큰 뜻을 털어놓고, 일왕 생일 경축행사가 열리던 훙커우공원에서 일본군 수뇌부가 도열한 단상에 폭탄을 던져 시라카와 대장 등 10여 명의 군·정 수뇌들을 사상케 했다. 윤 의사는 현장에서 일본군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일본으로 이송돼 그해 12월 19일 24세 나이로 순국했다.

윤 의사의 의거 소식에 중국 지도자 장제스(蔣介石)는 "4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한 한국인 청년이 해냈다"며 격찬했고 이후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윤 의사의 의거는 이때까지 미미한 존재이던 임시정부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매헌 윤봉길기념관과 윤봉길 의사 동상(왼쪽).

"누가 임시정부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그저 백범 한 사람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임정 간판을 메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윤봉길 의사 의거가 있게 되어 임정이 살아났습니다."

독립운동가 정화암 선생(1981년 작고)은 "광복과 더불어 귀국할 때 임정을 앞세워 떳떳하게 나선 것도 모두 윤봉길 의사의 피 한 방울의 결과"라고 말해왔다.

이렇게 한국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윤 의사의 탄신 100주년이던 지난해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김학준)는 다큐멘터리 〈아! 윤봉길〉을 제작, 대전 MBC TV를 통해 방영했다. 또 '윤봉길 의사의 항일투쟁과 한중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한중일 기념국제학술회의(6월 18일)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윤 의사에 대한 사실도 바로잡았다. 윤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 단상에 던진 것은 수통형 폭탄이며,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으로 지참한 것이었다. 진위 논란이 일었던 윤 의사 의거 직후 체포 사진도 진짜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17일 매헌기념관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는 윤 의사의 연행 장면이 맞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올해 4월 29일 윤 의사 의거 77주년 기념행사를 상하이(오전 10시)와 서울(오전 11시)에서 동시에 열 예정이다.

매헌기념관에는 윤 의사가 거사를 앞두고 고향의 어린 두 아들에게 남긴 '강보에 싸인 두 병정(兵丁)에게'라는 편지가 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어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김구 선생 등 7인의 열사 만나는 효창공원과 백범기념관

서울 용산구 효창동과 청파2동 등에 자리한 널찍한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항일투쟁을 하다 목숨을 바친 삼의사,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 3인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다.

효창공원 정문을 들어서면 동쪽으로 30m 되는 곳에 임시정부 요인 묘소가 있고, 북쪽으로 30m쯤 올라가면 삼의사 묘가 보인다. 삼의사 묘는 백범 선생이 광복 후 일본에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세 분의 유해를 모셔와 만든 곳이다. 삼의사 묘역에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나란히 모셔져 있다. 1948년에는 임시정부 요인인 이동녕, 차이석, 조성환 선생의 유해가 모셔졌다. 1949년에는 백범 선생의 유해도 이곳에 안장됐다.

삼의사 묘역 앞에는 1990년 이곳에 유해를 모신 순국선열 7위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가 건립돼 매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 합동추모제전을 지내고 있다. 매년 3월 13일은 이동녕추모협회 주최로 이동녕 선생 추모행사가 열리며, 매년 6월 26일에는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백범 선생 추모제가 열린다.

효창공원 한쪽에는 2002년 10월 개관한 백범기념관이 있다. 백범기념관에는 동학, 의병, 애국계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통일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한 백범 선생의 일대기와 관련한 각종 기록과 자료가 디오라마, 모형, 애니메이션 등 최첨단 전시기법을 활용해 전시돼 있다. 또한 백범 선생과 임시정부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와 민족운동과 관련한 전문 자료실 등이 있다.

백범기념관과 기념관 안에 전시돼 있는 김구 선생 좌상.

도산공원의 안창호 선생 동상과 묘역.

안창호 선생의 애국과 교육정신 기리는 도산공원

지난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에서는 임시정부 지도자이자 흥사단을 창립해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순국 7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1973년 도산 선생의 애국정신과 교육정신을 기리고자 조성한 도산공원에서는 매년 3월 10일 흥사단과 도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모기념행사가 열린다.

공원 입구에서 똑바로 걷다보면 도산 선생과 부인의 유해를 합장한 묘소가 있다. 동쪽으로는 동상과 동상을 중심으로 산책로가 둥글게 나 있다. 기념관에는 도산 선생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는 사진 70여 점과 편지들이 있다. 또 흥사단에서 활동할 때 작성한 문서들, 임시정부 사료집, 도산일기 등이 전시돼 있다. 도산어록과 연보, 사진은 터치스크린으로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6월 도산 선생 탄생 130주년을 기념해 도산학회와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민족수난지도자와 그 가족의 삶'을 주제로 한 특별사진전이 열리기도 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공원 안 돌비석에 새겨진 '도산의 말씀'은 도산 선생이 남긴 어록 가운데 하나로 그의 교육과 애국 사상을 한눈에 보여준다.

서재필 선생의 독립 향한 외침이 남아 있는 서대문독립공원

"정부는 국민의 종복이요, 국민이 곧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1896년 순한글과 영문판 독립신문을 창간한 분이 송재 서재필 선생이다. 송재 선생은 같은 해 독립협회를 창설했고, 이듬해(1897년)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 자리에 국민 성금으로 독립문을 건립했다. 원래 종로구 교북동에 있던 독립문은 1979년 서대문구 현저동 지금의 자리로 이전 복원됐으며 1992년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른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연계하여 서대문독립공원으로 문을 열었다.

독립문과 서재필 선생 동상.

독립문과 머지않은 자리에 송재 선생의 동상이 있다. 한국인 최초의 서양의사이기도 한 송재 선생은 1864년 전남 보성에서 출생해 18세에 관직에 진출했다가 1884년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자격증을 취득했다. 평생 조국과 미국을 드나들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송재 선생은 3·1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위원장을 맡았다. 선생은 1922년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독립을 청원하고 1925년 호놀룰루 범태평양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고 규탄했다. 1951년 작고한 선생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서대문 독립공원은 지난해 8월부터 인근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근대사를 상징하는 민족의 성지로 재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 20일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임시정부 숨결찾기

"침실 바닥 탈출로에 코끝 찡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년을 맞아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이화학술원과 화정평화재단 · 21세기평화연구소는 중국에서 임시정부의 여정을 되짚어보는 뜻깊은 탐방을 했다. 조상들의 흔적을 되짚어본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탐방단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10명이 합류했다.

중국 항저우시 장생로 호변촌 23호. 임시정부가 두 번째로 사용한 청사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지 90돌이 되는 해다. 1945년 11월까지 중국에 머물렀던 임시정부의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임시정부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로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그해 5월 상하이를 떠나야 했다. 항저우, 창사 등을 거쳐 1940년 충칭에 이르러서야 막을 내린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지난 3월 23일 탐방단을 태운 비행기가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다. 임시정부 청사까지 가는 동안 버스에서 본 상하이는 하나의 커다란 공사장이었다.

임시정부 청사가 자리한 곳은 열강 세력이 충돌했던 19세기 말 옛 프랑스 조계에 속하던 노만구(盧灣區) 마당로(馬當路) 보경리(普慶里) 4호. 주변의 고층 건물과 대비되는 낡은 3층짜리 옛 건물이다. 1, 2층에는 책상, 의자 등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물건들이 잘 배치돼 있었다. 3층 자료실에는 임시정부의 활동상을 소개하는 자료와 사진이 전시돼 있었다. 낡은 외관에 비해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지만 좁은 공간 탓에 충실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청사를 돌아본 유공자 후손들은 "더부살이 신세였다고 하지만 정부청사라고 하기에는 비좁고 초라한 공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적지로 보존된 임시정부 청사 보며 뿌듯

탐방단은 더 나아가 청사의 계속 보존 여부를 걱정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이경태(27) 씨는 "언젠가는 개발논리에 밀려 없어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거처가 있던 청사 바로 옆 영경방 터에는 이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중국 항저우시 임시정부 호변촌 청사 내 응접실(왼쪽)과 집무실.

다음 날 탐방단은 항저우로 이동했다. 1932년 5월 상하이를 떠난 임시정부가 처음 도착한 기착지였다. 임시정부는 인화로(仁和路) 22호와 호변촌(湖邊村) 23호에 청사를 뒀다. 인화로의 청사는 개인 소유 식당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항저우시가 호변촌 청사를 2007년 복원해 임시정부기념관으로 꾸몄다는 사실은 탐방단에게 위안거리였다.

"복원된 곳에라도 한국인이 많이 방문해 그곳의 중요성을 중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감시 때문에 자싱(嘉興), 난징 등을 오가며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었다. 백범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자싱에 피난처를 두고 있었다.

자싱의 매만가(梅灣街) 76호에 있는 백범의 피난처에 도착한 탐방단은 침실 바닥에 난 비상통로를 보는 순간 숙연해졌다. 통로는 뒷문을 거쳐 시난호(西南湖)와 연결됐다. 백범은 일제의 수색이 있을 때면 이 통로를 거쳐 뒷문 밖에 매어둔 배를 타고 피신했다.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나룻배를 보면서 또 다른 후손 최민석(23) 씨는 "하루하루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으로 생활했을 요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찡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100m가량 떨어진 일휘교(日暉橋) 17호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살았던 집이 복원돼 저장(浙江)성의 성(省)급 문화재로 지정돼 있었다.

1935년 11월 항저우를 떠난 임시정부 요인들은 전장을 거쳐 내륙의 창사로 이동했다. 창사에서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후손들을 안타깝게 했지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백범이 조선혁명당원 이운한에게 피격당한 남목청(楠木廳)의 조선혁명당 본부가 창사시 주도로 복원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창사의 악록(岳麓)산에는 백범이 수술을 받은 뒤 요양한 옛 가옥이 기념관으로 꾸며져 있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일본군이 중국 내륙으로 밀고 들어오자 다시 광저우로, 류저우로 발걸음을 옮겼다. 임시정부가 두 도시에 머문 기간이 길지 않아서인지 제대로 남아 있는 유적이 많지 않았다.

광저우에서 탐방단은 황푸(黃埔)군관학교와 중산(中山)대학을 방문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독립에 대한 일념으로 문무를 닦은 곳이다. 임시정부가 1938년 11월부터 1939년 5월까지 머무른 류저우에는 당시 호텔로 사용된 낙군사(樂群社)라는 건물이 '임정항일투쟁활동진열관'으로 꾸며져 있었다.

임시정부는 치장(綦江)을 거쳐 1940년 9월 충칭에 도착했다. 임정이 충칭시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연화지(蓮花池) 청사는 1995년 복원됐다. 양옥 다섯 채인 이 청사는 '정부청사'에 걸맞게 번듯했다. 탐방단은 "깔끔하게 정돈된 청사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백범일지〉 저술한 오사야항 청사는 철거 직전

그러나 충칭에서도 오사야항(吳師爺巷) 청사는 금방이라도 무너져내릴 듯했다. 이곳은 충칭의 세 번째 청사로, 재개발로 곧 헐릴 위기에 처해 있다. 백범 선생은 여기에 머무는 동안 〈백범일지〉 하권을 저술했다.

충칭 도심의 한국광복군총사령부는 이미 개인 소유 식당으로 바뀌어 있었다. 광복군 출신인 외할아버지의 자취를 찾아온 윤지애(22) 씨는 "사유지라서 들어가보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주일 동안 임시정부 유적을 둘러보며 탐방단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경험했다. 중국 지방자치단체가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원과 유지 노력을 기울인 곳에선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나타냈다. 반면 곧 사라질 유적 앞에 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상의 발자취를 돌아본 강정민(27) 씨는 "모든 유적이 잘 복원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다"면서 "복원된 곳에라도 한국인이 많이 방문해 그곳의 중요성을 중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G

글 · 금동근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1. 1909년 3월 안중근 의사는 11명의 동지와 함께 비밀리에 단지회를 조직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다지며 왼손 무명지를 잘랐다. 이를 기념해 2001년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이 크라스키노시를 관통해 서쪽으로 빠지는 다리인 주카노브카 다리 밑에 단지동맹비를 세웠다.

2.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임시정부가 1926년 3월부터 1932년 5월까지 사용한 청사로 상하이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청사다.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지(舊址)로 복원해 노만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3. 저장성 자싱의 매만가에 있는 김구 은신처. 윤봉길 의사 의거 후 일제의 검거를 피해 자싱으로 피신한 백범이 피난처로 이용한 장소. 위급한 때에는 비상구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가 처녀뱃사공 주애보의 배를 타고 호수로 피신했다고 한다. 입구엔 '대한민국 김구 선생 항일시기 피난처'라고 쓰인 현판이 있다.

4. 윤봉길 의사 의거 장소. 1932년 4월 29일 일제의 천장절 기념식과 상해사변 승전 축하식이 홍커우공원에서 행해지는 것을 기회로 삼아 한인애국단의 윤봉길 의사는 일제 군부와 정관계 수뇌부 7명을 처단하는 상해 홍커우공원 의거를 결행했다.

5. 세균전을 목적으로 조직된 관동군 731부대 전시관. 현재 731부대 본부 건물과 일부 유적지가 남아 있어 일본 관동군 세균부대의 잔혹상을 알리고 있다.

1

2

3

4

5

사진제공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에 깃든 민족 혼(魂)

이 광야에서 다시 부르게 하리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는 2005년부터 매년 여름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대학생을 주축으로 일제강점기 항일투쟁 유적지를 답사하고 있다. 자유독립국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과거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미래세대가 잇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6

7

8

6. 용정중학교. 옛 이름은 대성중학교로, 옛 건물은 용정중학교의 역사기념관으로 사용돼왔으나 1996년 옛 모습으로 복원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항일운동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으며, 특히 윤동주기념관 코너가 설치돼 그의 항일운동과 순수했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

7. 뤼순감옥. 옥사 정문에는 '여순일아감옥구지'라고 되어 있으며, 안중근 의사가 투옥됐던 감방에는 '조선애국지사 안중근을 구금했던 감방'이라고 표기돼 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쓰던 침대, 책상 등과 그가 쓴 유물 2편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많은 우리 항일 투사들이 고초를 겪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곳이다.

8. 봉오동 전투 전적비. 청산리 전투의 시발이 된 봉오동 전투 기념비. 총사령관 홍범도를 중심으로 일본 정규군과 싸워 이긴 최초의 전쟁이다.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장소는 현재 봉오 저수지다.

9.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역.

10.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사살한 곳.

11. 청산리전쟁 기념비.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청산리 일대에서 홍범도의 연합부대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연합해 백운평 전투를 비롯해 10여 차례 일본군과 싸운 전투로, 2001년 세운 거대한 기념비의 뒷면에는 '청산리 항일대첩 기념비'의 건립취지문과 건립 경위를 밝힌 글이 석판에 새겨져 있다.

12. 용정 명동촌 윤동주 생가. 윤동주 시인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별 헤는 밤' 등의 시를 통해 그리워한 북간도의 집이다.

9

10

11

12

후손들의 노력으로 유해 봉환 잇따라

독립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90년 역사를 굳건히 세운 독립투사들의 흔적은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다. 나라 없는 설움, 일제강점기의 삼엄함 속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독립의 날을 염원하며 삶을 불사른 독립투사들의 흔적은 오늘날 그들의 뜻을 받드는 이들과 후손들의 가슴 속에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임시정부마저 없었던 암울한 시기였던 1909년 만주에서 일제 통치를 강요하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의기를 떨친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뤼순(旅順)감옥에서 쓴 친필유묵(遺墨) '독립(獨立)'이 2005년 우리나라에 돌아온 것은 안 의사의 흔적을 추적하던 개인과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노력 덕분이었다.

일본 히로시마의 한 사찰에 보관 중이던 폭 66cm, 길이 32cm의 이 친필유묵은 2000년 다큐멘터리 방송인 김광만 씨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래 김 씨와 숭모회의 노력으로 소유주인 사찰 주지 히타라 마사즈미 씨를 설득한 끝에 반환됐다.

안 의사는 뤼순감옥에 갇혀 있던 석 달여 동안 200여 점의 유묵을 남겼다. 글씨를 통해 서릿발 같은 기상을 보여주던 안 의사는 글씨마다 손가락 하나를 자른 왼손바닥을 눌렀다. 의사는 사형집행 한 시간 전 조국 광복을 다짐하며 마지막 글씨를 써내려갔다.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 그것이었다.

안 의사가 남긴 친필유묵들을 어렵게 모아 모두 8점을 소장하고 있는 숭모회는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위탁 보관 중인 '독립'을 비롯해 국내외에 있는 안 의사 친필유묵들을 모아 오는 10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은 기존의 오래된 건물이 낡아 올해 3월 말부터 기념관 부지 안에 새

동아DB

순국선열들의 위패가 모셔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렸던 한 행사에 모인 독립유공자후손들.

동아DB

27세 때 감옥에서의 김산 선생.

로운 기념관으로 신축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쯤 완공되면 시설 미비로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 중인 안 의사 관련 유물들을 이곳으로 옮겨 전시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 유족회, 후손 돕기까지 팔 걷어

2005년 '올해의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김산(본명 장지락) 선생은 중국에서 한때 자신을 중국인으로 알고 살아가던 아들 고영광(73) 씨의 노력으로 1984년 중국에서 스파이 혐의를 벗고 복권됐으며, 우리 정부로부터도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산 선생은 미국인 종군여기자 님 웨일스와 같이 쓴 책 〈아리랑(song of arirang)〉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나라 잃은 젊은 혁명가의 굴곡진 삶을 기록한 〈아리랑〉은 1941년 미국 뉴욕에서 초판이 출간됐으며, 2004년 한민족아리랑연합회가 뉴욕의 한 고서점에서 찾아낸 초판본을 입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초판본에는 그동안 웨일스의 단독 저서로 알려졌던 〈아리랑〉이 두 사람 공저로 표기돼 있었고 김산 선생의 모습이 표지에 사용됐다.

부친의 성(姓)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신산한 세월을 살아온 고 씨와 같은 독립투사 후손들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 또는 단체를 만들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독립투사들의 흔적을 찾아내고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에 흩어져 있는 순국선열 유해를 반환하거나 위패를 모시는 등 선열의 애국정신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가장 오래된 독립유공자 후손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선열유족회(회장 이홍종)다. 1919년 4월 13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순국선열 유족들이 그곳에서 비공식 모임을 가진 것이 시초가 된 한국선열유족회는 한때 군사정권 하에서 해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국가보훈처와 함께 일제에 의해 침탈된 국권을 되찾기 위해 국외에서 항일투쟁 중에 사망한 순국선열 유해봉환 노력을 펼쳐왔다. 1997년 1차로 1684위, 2002년 2차로 674위, 2006년 3차로 537위를 국내로 모셔왔으며, 이들 위패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 1층의 순국선열위패봉안소에 모시고 관리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이형주 사무관은 "국외 순국선열 유해봉환이 때때로 국가 간 미묘한 외교문제 때문에 난관에 봉착할 때 독립유공자들의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후손들의 노력은 문제해결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가장 규모가 큰 독립유공자 후손단체는 사단법인 광복회(회장 김영일)다. 1965년 창립한 광복회는 2·8독립선언 기념식, 3·1운동 기념식, 효창원 7위 선열 추모제전(4월 13일) 등 독립운동 관련 행사 개최와 함께 독립운동사 연구와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선열들의 뜻을 되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순국선열회와 함께 '이달의 독립운동가' 기획사진전 등을 통해 잊힌 독립유공자들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국외에 흩어져 있는 선열의 유해를 찾아내고 봉환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오는 2013년 100주년을 맞는 흥사단(이사장 반재철)은 독립유공자 후손단체는 아니지만 창립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무실, 역행, 충의, 용감' 정신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는 단체다. 흥사단은 도산 선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통일, 투명사회, 교육, 시민사회, 청소년 등 5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독립유공자후손돕기운동본부(공동대표 강원구, 나종목, 이덕로, 이춘재 등 6인)를 만들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국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고 있다. G

"국외 순국선열 유해봉환이 때때로 국가 간 미묘한 외교문제 때문에 난관에 봉착할 때 독립유공자들의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후손들의 노력은 문제해결에 큰 힘이 된다."

글 · 박경아 기자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코너에는 임시정부 이동시기의 김구 선생 피난가옥이 재현돼 있다.

임시정부 90주년 ·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친일 재산 거둬 유공자 후손 지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헌법 제1장 제1조 1항에서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 보훈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가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다.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는 올해, 정부의 보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정부는 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기리고 국민화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4월 13일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리는 정부 공식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각계 주요 인사, 청소년, 인터넷 참여 희망 국민을 초청해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치를 예정이다.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자체 기념식을 갖는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8 · 15광복 전까지 활동한 중국 상하이와 충칭,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현지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에서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해외 안장 애국선열의 유해봉환식도 갖는다.

이에 앞서 4월 3일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일반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기념하는 열린음악회를 가졌고, 4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해외 거주 임시정부요인 후손 초청행사도 마련한다. 또한 4월 11일에는 청계천광장에서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 청계천 걷기대회를 열고, 같은 날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중국 충칭에서는 학술대회도 갖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정부는 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기리고 국민화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1912년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제정해 호적을 만들었다. 당시 호적등재를 거부해 무호적 상태로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260여 명. 대표적인 분이 신채호 선생이다. 호적이 없다 보니 그동안 언론매체에서는 무국적자로 인식하기도 했는데,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이 되는 4월 13일에는 기념식전 행사로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운데 후손이 확인된 50여 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 신채호 선생과 안무 장군, 유명호 선생 등 대표 3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수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행사

국가보훈처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안 의사의 독립정신과 독립운동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민관사업으로 국내외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의거 100주년' 기념식을 의거일인 10월 26일 국내외에서 동시 개최하는 한편, 민간단체 등이 주관해 다큐멘터리 제작, 오페라 공연, 사적지 탐방, 자료집 발간,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안 의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이 국민의 애국심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이 되는 날인 내년 3월 26일에는 서울 남산공원에 새로운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준공할 예정이다. 3799㎡(1149평)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새 기념관은 안 의사의 단지(斷指) 동맹을 형상화한 현대식 건물이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지금까지 해외에서 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2008년 말 현재 1225명에 이른다. 하지만 귀화를 희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데다, 국적 취득과 등록심사 절차가 중복되는 등 국내 정착에 오랜 시간이 걸려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교육자료집 발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간략히 다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알리기 위한 교육자료집을 발간했다.

국가보훈처는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알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자료집 〈얘들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들어볼래?〉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교육자료집은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집필에 참여해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임시정부의 발자취와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을 예시 자료와 사진, 문헌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업시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토론 및 토의 학습, NIE 학습 등 학생활동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자료를 DVD에 함께 수록하고 있다.

교육자료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는 간단한 예화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생각해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훈화 교육 자료를 담았다.

둘째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임시정부가 민족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했다. 또한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을 수립 초기인 상하이 시대,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의 이동시기, 충칭 정착 시기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알아보자'는 학생들이 임시정부 수립과정과 조직, 각 시기별 활동을 NIE 학습, 토론 및 토의 학습, 음악·미술 등의 교과와 연결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학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자료집은 전국 초등학교와 관련 교사 모임에 배포해 수업시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국가보훈처 어린이 사이트인 '꾸러기 보훈광장'과 교육정보 사이트에 게재해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G

동아DB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류저우시 유석로 1호에 위치한 낙군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일투쟁진열관으로 사용되고 있다(위).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코너에 마련된 42인의 임시정부 요인상.

정부는 2007년 5월부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국적 취득과 유족등록 심사 절차를 통합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5월부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국적 취득과 유족등록 심사 절차를 통합했다. 이로써 귀화신청 뒤 정착금 지급까지의 기간을 종전 602일에서 376일로 단축했다.

또한 해외 현지조사와 유전자 분석 등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후손 입증 자료의 제출에 편의를 제공했다. 지난 한 해 해외 현지조사를 31일간 실시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154명에 대한 유전자 분석으로 228명이 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가구별로 가족 수에 따라 4500만원에서 7000만원의 정착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가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영주귀국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령층인 데다 무주택과 불안정한 직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관련 부처,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내 정착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주거와 직업, 복지시책의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자긍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속재산 관리 활용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의 대가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으로 전입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지원 및 독립운동 관련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친일재산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된 규모는 450필지(475만㎡)로 공시가격으로는 428억원에 상당한다. 국가에 귀속될 친일재산의 총규모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168억원으로 추정된다.

기금에 전입된 재산은 소송 등 구제절차가 남아 있어, 매각해 기금재원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재산 처분과 보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친일국가귀속재산은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게 사용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귀속재산의 규모나 귀속시기 등을 감안해 활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G

글 · 구자홍 기자

그때 그 임정활동, 독립기념관에 살아있다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기념해 민족혼의 전당과도 같은 독립기념관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실을 옮겨 재개관을 준비 중이다.
백문이불여일견! 독립기념관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실을 지면으로 미리 둘러보자.

90년 전 활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당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 지식과 정보로 그 활동의 의미를 찾는 것은 자칫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시정부의 활동무대가 대부분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어 교과서 등을 통해 사진과 자료로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임시정부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모아 전시해놓은 기념관과 박물관을 찾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한층 실감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기념해 민족혼의 전당과도 같은 독립기념관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실을 옮겨 재개관을 준비 중이다. 날로 화창해지는 봄날, 미래 세대인 자녀의 손을 잡고 봄나들이 삼아 5000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7개 전시관과 815개의 태극기가 휘날리는 독립기념관을 찾아 순국선열들의 활동을 접해보는 것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듯싶다. 백문이불여일견! 독립기념관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실을 지면으로 미리 둘러보자.

충남 천안에 자리 잡은 독립기념관은 5000년 민족사의 독립 의지와 7000만 겨레의 통합과 전진 의지가 담긴 민족혼의 전당과도 같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관리는 물론 전시와 국민교육, 자료 홍보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남북통일 이후를 대비해 북녘 동포를 재교육하고 통합하는 '겨레 하나 됨'의 장(場)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650만 해외동포를 모국과 연결하는 정신적, 정서적 모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측은 "민족혼의 산실로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상처 받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주 자주 독립국가의 위상을 지키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독립기념관은 '국민 성금으로 지어진 독립기념관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린다'는 정신으로 전면적인 관람 무료화를 실시해 국민이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게 했다.

7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독립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관은 제7전시관이었다. 임시정부 수립과정과 외교, 군사, 교육, 문화활동 등 각 분야에서 임시정부의 이동, 충칭 정착 이후 광복을 위해 매진한 활동, 독립운동 정당 등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다양하게 전시했다. 최근에는 7전시관을 체험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7전시관에 있던 임시정부 관련 전시물을 제6전시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6전시관 4ZONE에 자리할 대한민국 임시정부 코너에는 임시정부 설립과정과 활동을 소개하고 임시정부 27년의 역사 관련 자료를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상하이 마당로 청사 외경은 부조로 재현하며, 내부 사무실 모습도 재현할 예정이다. 기존 7전시관에 있던 42명의 임시정부 요인상도 이곳으로 이동해 전시된다.

임시정부 코너에는 임시정부 이동시기 자싱 지역의 김구 선생 피난가옥을 재현하고, 피난 시 사용한 피난선박을 탑승체험하고 사진촬영 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직비전을 통해 임시정부 이동 시 선상회의 장면이 매직비전을 통해 연출되며, 충칭 임시정부청사 건물을 절개모형으로 제작 연출할 예정이다. G

글 · 구자홍 기자

'민족혼의 전당' 독립기념관

김양 국가보훈처장

"나라위해 목숨바친 선열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의 발걸음이 한층 분주하다. 김구 선생의 손자이기도 한 김양 처장은 임시정부 법통을 되살리기 위한 보훈정책의 하나로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한편, 오는 10월 26일에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행사'도 민관사업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임시정부 수립 시점과 현재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는 3세대 가까운 시간적 거리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간극을 좁혀 '소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임시정부를 알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자료집 〈얘들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들어볼래?〉를 최근 발간한 것도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다. 이 자료집은 전국 초등학교와 관련 교사 모임에 배포돼 수업시간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를 알리려는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노력의 정점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53) 국가보훈처장이 있다. 그는 세대를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임시정부의 정신을 잇기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임시정부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큽니다. 식민지해방사에서 정부조직으로 27년이 넘도록 해방운동을 펼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외에는 세계 역사상 그 예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굽히지 않고 정부조직을 유지하고 독립운동을 이끈 임시정부의 노력이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도의 지도자 네루도 당시 아시아 식민지 국가 가운데 열강들에게 독립을 보장받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임시정부 활동은 한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적 차원에서 기념할 만한 것입니다.

대내적인 성과를 보면, 우리 겨레가 나라를 잃은 지 9년 만에 세운 정부가 국민이 주인이 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 통합정부의 결실을 보게 되는데, 임시정부가 독립운동계의 대통합을 달성한 사실은 민족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계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3·1절과 4·1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 속한 3, 4월을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탄생을 생각하는 기간'으로 정해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겨레가 하나 됐던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투쟁, 국난극복 정신을 계승함으로써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파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조기에

해외안장 선열의 유해봉환 사업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책무다.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념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내 기념식은 4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남산의 백범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고 신채호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여합니다. 또한 임시정부의 거점이던 중국 상하이와 충칭, 미국 LA에서도 국내 행사와 동시에 기념식을 열어 민족의 단합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해외안장 선열의 유해 봉환과 국제학술회의, 해외거주 후손 초청 등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국선열들의 유해봉환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했듯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한책임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안장돼 있는 애국선열의 묘소는 259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지에서 단장해 관리되고 있는 묘소가 96기이고, 소재지나 위치가 불명확한 묘소가 163기입니다.

유해봉환 사업은 1946년 일본에서 순국하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선생의 유해 3위를 효창원에 안장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3위를 봉환해 국립현충원 등에 안장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계기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송석준 선생 등 6위가 봉환됩니다. 유해봉환 사업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유해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노력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독립유공자 포상은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구국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국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역사학을 전공한 박사급 연구원들과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등 22명으로 구성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2005년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80만 장의 자료를 수집했고, 46만 장의 자료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1만8000명에 달하는 독립운동 참여자를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더욱 활성화해 각종 사료의 수집과 분석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오늘의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의 국권회복 노력과 6·25 전쟁 같은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분들의 값진 희생 위에 이룩된 것입니다.

국가보훈이 곧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국민의 단결과 화합입니다. 동시에 국가발전의 토대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선열들의 값진 희생이 존중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는 올해 여러 행사 등을 계기로 현 세대가 순국선열들과 나라사랑에 대해 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G

글 · 구자홍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e하나로민원' 지적도 등 29종 추가 서비스

종이 줄여 환경 보호하고… 절차 줄여 불편 해소하고…

행정안전부가 구비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민원처리가 가능한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서류 사용량이 크게 줄어 환경문제 해소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서류 발급 및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

#1 회사원 박문수(42) 씨는 구청에서 아버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하려니 아침부터 마음이 바빠졌다. 상사인 이 부장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필요한 구비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것들을 준비하는 데만도 한나절은 족히 걸릴 듯했다. 일단 무엇부터 떼야 하나 고심하다 구청에 문의했더니 이게 웬일인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와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단다. 도무지 믿을 수 없어 재차 확인했지만 구청 직원의 대답은 같았다.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주민등록등(초)본은 따로 발급받아갈 필요가 없었다. 구청 직원은 박 씨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e하나로민원을 이용해 박 씨의 정보를 확인한 뒤 아버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바로 처리해줬다.

#2 올여름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주부 서지혜(37) 씨. 아이의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절차를 확인한 서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권용 사진 2장과 신분증만 지참해서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동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됐던 것이다. 순간 10년 전 신혼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 일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남편의 병적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야만 여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구비 서류 제출 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의 브랜드 명칭)' 서비스 덕에 국민들의 생활이 한결 편리해졌다. 아울러 종이 서류 사용량이 크게 줄어 에너지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e하나로민원은 행정·공공·금융기관들이 주민등록등(초)본, 법원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 서류 정보를 조회 확인함으로써, 일반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구비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없앤 전자정부 서비스다.

종이 서류 줄여 1000억원 이상 절감

정부는 2002년 11월 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2005년 말에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1·2단계 구축사업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행정자치부 조사에 따르면 2005년 4800여 개의 민원업무 중 민원인이 구비 서류를 3종류 이상 제출해야 하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로 종이 서류 사용량이 지난해에만 2700만여 건이 줄었다(왼쪽).
e하나로민원 서비스 이용기관도 행정기관 313곳, 공공기관 50곳, 금융기관 16곳으로 늘어났다.

각종 민원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동의신청서만 작성하면 완료된다.

민원업무가 전체의 57%인 2700여 개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공동 이용되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42종의 구비 서류 외에 수출입 신고필증, 지적도 등 29종의 구비 서류를 추가해 공동이용 구비 서류 정보를 총 71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여권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전입세대 열람 등의 민원신청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가능해졌다.

이젠 자동차 명의변경도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기존에 필요했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양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해당 기관에서 정보 확인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로 떼지 않아도 된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행정기관 313곳, 공공기관 50곳, 금융기관 16곳으로 늘어나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원 구비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대기하는 시간과 교통비는 물론, 서류 발급 및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00억원 이상 절감된다.

'e하나로민원'은 행정 · 공공 · 금융기관들이 주민등록등(초)본, 법원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 서류 정보를 조회 확인함으로써, 일반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구비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없앤 전자정부 서비스다.

인터넷으로 민원신청 끝낼 수도

실제로 2007년 한 해 동안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약 2800만 건의 구비 서류가 줄어 총 100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기획총괄팀의 이영미 주무관은 "지난해에도 2700만여 건의 구비 서류가 줄고, 1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회적 비용이 5~10% 더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민원인은 간단한 동의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의 신청, 이의신청, 진정, 건의 등 전반적인 민원 사무에 적용된다. 단,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하기에 앞서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pr.share.go.kr)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명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에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접근이 쉽다.

한편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신청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민원G4C 홈페이지(www.g4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창구직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사전 동의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김명균 기획총괄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환경문제 개선과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신청서 하나로만 민원처리가 가능한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아이돌보미 희망자는 50시간의 무료 양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아이 돌보미' 전국 확대 시행

아이 맡길 곳 없어 발만 동동 '1시간당 1000원'에 걱정 뚝

#1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둘째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인 김 모(39) 씨는 의욕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지만 한 학기도 마치지 못하고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저녁시간에 집을 비워야 하는데, 이제 8개월 된 아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당초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지만 친정아버지가 뇌중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어린이집에서는 생후 11개월이 지나야 받아준다고 하고, 이웃에 부탁하자니 큰아이 때문에 이미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터라 더는 부담을 줄 수가 없다.

#2 지난해 봄 딸을 출산한 신 모(31) 씨는 시어머니 덕분에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해 마음 편히 일해왔다. 그런데 최근 시어머니의 퇴행성관절염 증세가 심해져 온종일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졌다. 친정어머니마저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전세 대출금이 남아 있고 친정 생활비까지 얼마간 대어줘야 하는 신 씨는 요즘 한숨이 잦아졌다.

어딜 가나 육아에 대한 고민을 듣게 된다. 출산을 앞둔 직장 여성은 으레 "아이 낳으면 돌봐줄 사람은 있어?" 하는 질문을 받게 마련이다. 다행히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육아 고민을 덜었다 하더라도 마음을 온전히 놓을 수는 없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이가 방치될 난감한 상황에 종종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잦아질수록 마음 여린 엄마들은 자신의 일이나 계획을 포기하기 쉽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해온 아이돌보미 사업을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이나 출장, 질병 등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사정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 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어린이 양육 지원사업이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비용(시간당 5000원 · 주말과 심야 6000원 · 교통비 별도)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1000~4000원을 지원한다. 가구 월소득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가정은 월 80시간(연 480시간) 내에서 정

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정 가운데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이면 시간당 4000원(이용요금의 80%), 전국 평균의 절반 이상이면 시간당 1000원(이용요금의 2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김 씨의 경우 가구 월소득이 4인 가구 전국 평균(391만1000원)보다 많아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김 씨는 "전액 본인부담이라 하더라도 시간당 5000원이면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다. 무엇보다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정부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좋다"며 반가워했다.

부부와 시어머니 그리고 딸, 이렇게 4인 가족인 신 씨의 경우 부부의 월소득을 합한 금액이 195만6000원(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보다는 많고 391만1000원(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시간당 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씨는 "평일 낮 3, 4시간만이라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으면 시어머니가 한결 편해하실 것 같다. 큰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지난해 이미 3만 가구가 혜택을 봤고, 만족도도 9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 여성에게는 취업 기회 제공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보육시설에 등·하원시키고, 부모가 올 때까지 돌보는 등의 양육 서비스는 물론 취학 어린이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학습 돌보미가 파견되면 아이 숙제며 예·복습, 다음날 준비물까지 챙겨주므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우려되는 가정학습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사고로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키우는 이모(42) 씨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 시간당 1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에 아이들 학습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무척 반가워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춰 거주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정 사업기관(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역 사업기관 확인 가능)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하루 이틀 앞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4월 6일이나 4월 13일부터 아이돌보미 파견을 시작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덕분에 양육비 부담에 대한 서민층의 시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장년 여성에게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활동 중인 2500명 외에 올해 2000여 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65세 이하 희망자는 면접을 거쳐 사업기관에 등록해 50시간의 무료 양성교육을 받으면 된다. 단, 양성교육 이수 후에는 6개월 내 50시간(주말, 공휴일, 심야 20시간 필수) 활동 의무가 주어진다. 보수는 시간당 5000원, 주말과 심야(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는 시간당 6000원이다. G

글 · 구미화 객원기자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절차

① 사업기관 회원등록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지참
- 소득 판별,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② 아이돌보미 신청
- 서비스 개시일 기준 1, 2일 전 신청 권장
- 인터넷 또는 전화 신청 (2일 전 권장) www.idolbom.or.kr

③ 본인부담금 선입금
- 사업개시일 1일 전까지 본인부담액을 사업기관 계좌로 입금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신청 때는 선이용, 후결제 가능)

④ 서비스 연계
- 예약 가정 선착순 서비스 연계 (순위가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우선 지원)

아이돌보미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로 함박웃음

까다로웠던 부가가치세 신고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모든 간이과세자들에게 간편신고의 길을 열었다.

동아DB

기획재정부는 경기불황을 감안해 당초 법인사업자는 제외하려 했던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모든 간이과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서식이 단순한 '간편신고'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업 및 제조업 사업자들은 법인이나 개인에 관계없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업자 등이 구매한 농축수산물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26일 공포 시행했다.

간편신고는 종전에는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모든 간이과세자들로 확대됐다. 일반신고서는 10종의 구비 서류와 25개의 작성항목이 있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구비 서류로 첨부해야 하지만, 간편신고서는 구비 서류 2종에 작성항목도 5개로 단순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450만명 중 38%에 이르는 170만명이 간이과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들이 모두 간편신고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당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법인사업자는 제외하려 했던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개인, 법인 모두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계속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양송필 사무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제 축소와 폐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당분간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 적용하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의 공제율을 공제한도 없이 2010년 말까지 적용받게 되며, 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은 종전처럼 102분의 2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기는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편 한의학연구원과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G

글 · 정지연 기자

안전띠 ON 휴대전화 OFF!

바쁘다고, 급하다고 운전중에
무심코 통화를 하고 있나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미국은 매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6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16년간 이어온 남몰래 이웃돕기
'선글라스 속의 선행' 그대, 박상민

가수 박상민의 기부액은 지난 16년간 40억원을 넘는다. 1993년 1집을 낸 이후 그는 끊임없는 기부 릴레이를 펼쳐왔다. 청각장애 어린이, 소아암이나 백혈병 등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돕는 15개 단체의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그가 선행에 '중독' 된 이유는 뭘까?

수년 동안 소아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는 가수 박상민.

선행이란 착하고 어진 행실을 말한다. 간혹 자신의 연예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일회성 선행을 과시하는 연예인도 있지만, 가수 박상민(45)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해온 경우라 더욱 빛을 발한다. 그의 스케줄 중 절반 이상은 돈을 받지 않는 무료 행사다. 더욱이 그 행사에서마저 불우한 아이들이 눈에 띄면 되레 주머니에 든 것을 다 털어주고 오는 일이 부지기수다.

"주변에선 '이젠 형도 돈 좀 모으고 제 몫도 챙겨라'며 야단이지만 흘려듣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소아암 환자들에게 수년 동안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고, 격투기 홍보대사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돕고 있어요. 최근 2년여 만에 12곡으로 꽉 채운 12집을 발표했는데, 이번 앨범의 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내놓을 생각이에요."

박상민에게 기부는 습관이요, 생활이다. 어느덧 '기부 천사'라는 별명도 붙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평가가 '가수 박상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오죽했으면 지인들이 충언이랍시고, 기부 자제를 요청했을까.

"이런 성격은 부모님에게서 나왔어요. 부모님은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기쁨을 감추지 않으세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있으면 어느 때보다도 짜릿함을 느껴요."

오랫동안 농사와 채소 장사를 겸해온 그의 부모님은 지금도 수확량의 절반을 양로원 등에 나눠주고 있다. 박상민 역시 스스로 나서서 선행할 곳을 찾아다닌다. 자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매니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락한다. 그를 잘 아는 이벤트 기획자는 "2005년 한 경찰관의 딸이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만만치 않은 수술비 때문에 몇몇이 모여 이벤트 공연을 준비한 적이 있다"며 "이 소식을 들은 박상민이 직접 전화를 걸어 무대에 오르겠다고 했고, 공연 중 목걸이 몇 개를 경매해 수술비에 보탰다"고 귀띔했다. 이 일화는 그가 해온 숱한 선행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박상민에게 기부는 습관이요, 생활이다.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오죽했으면 지인들이 충언이랍시고, 기부 자제를 요청했을까. 그는 스스로 선행할 곳을 찾아다닌다. 자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매니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락한다.

"새 앨범 수익금도 기부" 팬들 구매 릴레이

박상민이 12집 앨범에 "노래 잘하는 가수보다는 사람 냄새가 나는, 정이 많아서 인간미 넘치는 박상민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혀놓았듯이 그는 사람 냄새 폴폴 나는 가수임에 틀림없다. 작은 것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닮은 그는 효성도 극진하다.

그가 선행에 가속을 붙인 것도 아버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의 아버지는 최근 암으로 큰 수술을 받으면서 부쩍 늙었다고 한다. 그의 선행 이면에는 "좋은 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건강을 되찾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듯하다"는 것이 지인들의 전언이다.

16년간 봉사와 기부를 하면서도 박상민의 선행은 최근에야 알려졌다. 묵묵히 십수 년을 이어온 일이니, 그의 본심이 무엇인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상 역시 그의 선행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이다.

다함께 힘내자는 뜻을 담아 12집(사진)을 발표한 박상민은 판매 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기로 했다.

박상민의 소속사인 팍스뮤직 관계자는 "12집을 구입하겠다는 주문이 경기 지역의 각 관공서와 화장품업체, 리조트업체, IT업체 등에서 단체로 들어오고 있다. 적게는 수천 장에서 많게는 수만 장씩 주문하고 있다. 박상민의 팬 층이 10~40대로 두꺼운 데다 앨범 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내놓는다는 말에 판매에 가속이 붙은 듯하다"고 말했다.

여기엔 수록곡에 대한 관심도 한몫했다. 이번 앨범 수록곡 중 '웃자' '긍정의 힘' 'Stand up'은 힘내자는 뜻을 담고 있다. 경제위기를 맞아 어깨가 무거운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특히 '긍정의 힘'은 미국 레이크우드교회 담임목사인 조엘 오스틴의 저서 〈긍정의 힘〉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최근 유명 인사들의 잇따른 자살 소식에 충격에 빠진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노래다.

이 때문인지 박상민의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는 남다르다. 그는 "12집에는 뻔한 사랑 이야기보다 세상살이, 부모님, 자연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언제나 앨범이 나오면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모든 걸 다 녹여낸 것 같아 흐뭇하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에는 팬 서비스도 숨어 있다. 12집 앨범에 투명 안경을 낀 박상민의 사진이 한 장 들어있는 것. 박상민은 그 사진에 대해 "선글라스를 벗으면 벌거벗은 기분이 된다"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렇다면 그가 선글라스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대답은 간단하다. "강한 이미지가 사라질까봐 두렵고, 선글라스를 끼면 노래가 더 잘 나온다"는 것.

세상의 멍울진 곳을 어루만지는 그이지만 자신의 앞가림엔 젬병인 모양이다.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아직 싱글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독신주의자? 이에 박상민이 발끈한다.

"저도 여자를 좋아하는 정상적인 남자예요. 일에 빠져 살다보니 이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요."

지난 16년 동안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을 실천해온 '기부 천사' 박상민. 그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사로잡을 '그녀'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G

글 · 강석봉 스포츠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불필요한 재정부담 '눈덩이' "의원님,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개정이 늦춰짐에 따라 하루 12억원씩 연금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연금개혁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지금 공무원연금 재정이 크게 취약한 것은 법안을 개정해야 할 때 개정하지 못하고 실기(失機)한 탓도 없지 않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만 무성했을 뿐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의 제도개혁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인구와 재정의 변화에 따라 제도를 미세조정해 나가야 했던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니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100% 만족하는 주체는 없을 것이다.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여론도, 입법기관도, 정부도 처한 처지와 관점에 따라 크고 작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인 공무원, 사용자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자인 정부, 제3자로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를 이뤄 만든 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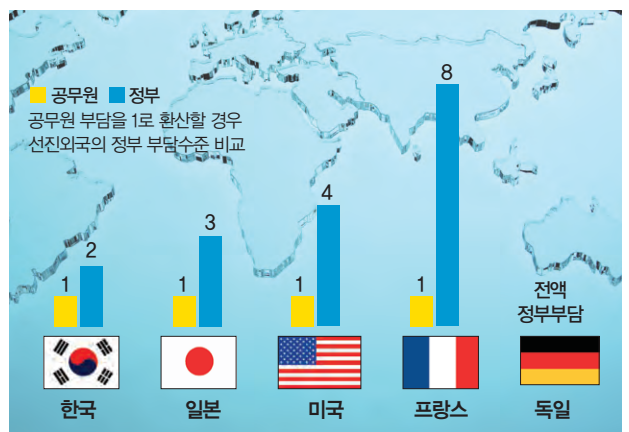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과거 어떤 법안보다도 내용을 강력하게 개혁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재정절감 효과나 제도의 합리성 제고 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법안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급여산식을 바꿔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을 최대 25%까지 삭감했다. 연금액 삭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인상률도 2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금액 산정 때 최종 3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던 것을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꾼 것은 획기적이다. 이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급여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 공무원연금이 여전히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지급하는 연금액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 또한 다른 나라 직역연금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같은 조치들은 고위공무원의 기득권을 상당히 약화시키며, 사회보장제도로서 공무원연금제도의 명분을 지키면서 동시에 재정을 절감하는 효

공무원연금 개선안 개요

	현행	개선안
기여율	보수월액 기준 8.5% (기준소득 5.525%)	기준소득 6%(2009년) → 7%(2012년)
지급률	2.1%	1.9%
연금산정 기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 ※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지급개시 연령	60세(1996년 후 임용자) ※ 2000년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단계적으로 60세로 이행 중)	65세부터 ※ 신규자부터 적용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 x 70%	퇴직연금 x 60% ※ 신규자부터 적용
연금조정 기준	CPI 정책조정 ※ 보수 · 물가 ± 2%P 내 조정	단계적 CPI 적용

외국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률 비교

지난해 10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공청회.

과를 거두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지급 시작 연령을 인사 정책의 별다른 보완 없이 현 정년인 60세에서 65세로 늦춘 것도 공무원들에게 5년 동안의 소득공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조치들이 당장, 동시에 실행될 경우 정부 보전금 규모는 향후 5년 동안 누적치 51%, 중기적으로 37%, 장기적으로 4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적 재정 효과 면에서 이번 건의안은 기존 구조개혁 건의안에 비해 25% 정도 절감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 개혁안이 부분개혁안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구조개혁안에 비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1998년 구조조정 이후 재정상태 급속 악화

현 개정안을 비판하는 주된 논거는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공무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더 높이고 연금액을 더욱 깎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제도 속성상 2018년경까지의 지출은 기왕의 연금 급여권을 심각하게 손대지 않고서는 조정하기 어렵다. 사회보험제도에서 정부가 기왕의 급여에 대한 약속을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 공무원의 봉급에서 무한정 보험료를 떼어갈 수도 없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제는 기초연금만이 아니라 퇴직금 기능과 인사정책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로서 정부는 오랫동안 연금에 대해 민간부문 사용자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지불해왔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전에 보험료를 적립할 책임을 지는 대신 사후적인 재정 보전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과거 정부는 군복무 기간의 가입기간 인정 비용 등 통상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무원연금 기금에 전가하기도 했다.

연금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미 형성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다.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공무원연금 재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계기는 1998년 이후의 구조조정이었다. 즉, 현 공무원연금 재정 상태는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정부 인력 정책과 연금정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과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 비율이 우리는 1 대 2 정도이지만 일본은 1 대 3, 미국 1 대 4, 프랑스 1 대 8에 이르고, 독일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금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미 형성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다. 경제와 정치 모든 면에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합의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양보에 나서겠는가? 국회가 하루 빨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해본다. G

글 · 주은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수출보험공사, 공기업 최초 '한국 최고의 직장'에 뽑혀

수출 통한 경기회복이 '발등의 불'

수출보험은 외국 수입업자가 수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할 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간접 수출지원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 수단이다.

요즘처럼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출 견인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표방하며 '비상경영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사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수출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수출보험 공급실적은 3월 27일 현재 전년보다 40.8%가 증가했다.

경영효율화 작업도 다른 어떤 공기업보다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정원의 12%를 감축하기로 한 데 이어 노사합의를 통해 직원 임금도 동결했다. 예산절감 운동을 펼쳐 2012년까지 12.5%에 해당하는 111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실적이 미미한 지사를 폐쇄하고 유사한 부서를 없애는 등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해 생산성을 높였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지난해 공기업 최초로 노사합의를 통해 담당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기여도에 따라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차등직무급제'를 본격 도입했다. 이를 통해 선의의 내부경쟁을 촉진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플랜트 수출을 지원한 이집트 ELAB 공장.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신한은행과의 양해각서 체결식.

유창무 사장은 직원들과의 산행, 번개팅 등을 통해 스킨십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효율화 작업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일부 직원들은 강한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취임한 유창무 사장은 수시로 노조위원장과 미팅을 가졌다. 급박한 경영 현안을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일선 직원들과도 점심을 같이하며 경영효율화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매주 다양한 직원들과 '번개팅'을 즐기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주력했다.

성과급 반납으로 인턴채용 2배 이상 늘려

동시에 사장을 포함한 임원 연봉을 40% 이상 자진 삭감했다. 임원 업무추진비 예산부터 반납하고 여비규정을 개정해 임원 출장비도 깎았다. 최고경영진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는 직원들도 따라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노조도 화답했다.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자신들의 성과급을 반납한 것이다. 반납한 금액은 총 3억8000만원. 이를 재원으로 20명 채용 예정이던 청년인턴을 55명으로 늘렸다. 또한 공기업 최초로 노사합의를 통해 대졸 초임을 25% 삭감함으로써 고용 여력을 확대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3일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휴잇 어소시엇츠(Hewitt Associates)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2009 한국 최고의 직장(Best Employers in Korea)'으로 선정했다. 공기업이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변이었다. 일반적인 공기업 문화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 김호일 홍보팀장은 "앞으로도 경영효율화와 수출보험 지원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의 든든한 동반자에서 철저한 경영효율화를 통해 신뢰받는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창조적인 수출에너지로 글로벌 리더를 향해 날아오르는 그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G

글 · 최호열 기자

Interview

유창무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유망 중소기업 보증지원 최선 다할 것"

유 사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동반 침체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경제위기 여파로 경쟁기업들이 투자와 마케팅 규모를 줄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와 시장개척에 나선다면 위기 이후 세계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부쩍 늘었다. 현재까지 10개 국내 은행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17개 전체 은행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융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중소기업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런 기업들에게 시장상황이 좋은 맑은 날에는 우산을 팔다가 정작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비 오는 날에는 쓰던 우산까지 거둬가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저는 지금은 중소기업의 우산을 빼앗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산을 나눠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는 은행 대출이 막혀 도산하는 유망한 수출 중소기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유 사장은 우리 경제의 차세대 먹을거리인 신성장동력 육성에도 열정을 보였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탄소 저감기술, 고품질 농산물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수출보험은 도입 이후 8개 영화에 140억원을 지원해 충무로에 새바람을 몰고 왔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개봉되어 호평을 받은 영화 '쌍화점'도 우리가 지원한 작품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탄소배출권(CDM) 사업의 투자실패 위험을 보장하는 '탄소종합보험'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려니와 미래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유창무 사장은 행정고시 13회 출신으로 중소기업청장 등을 지냈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사장 시절, 회사 창립 후 최초로 누적결손을 해소하는 등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9월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강강수월래(江江水月來) 됐으면…"

4대강을 문화가 흐르는 물길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4대강을국민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디자인할 것을 제안했고,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지역세미나에서는 강과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동아DB

4대강 살리기는 지역 문화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열린 영산강 황포돛배 재현 행사.

지난 2월 5일 범정부 차원의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발족했다. 기획단은 5월까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1년 말까지 완료(댐 · 저수지는 2012년 완료)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는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며, 기존의 하천 정비사업과도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월 열린 부처합동 신성장동력 설명회에서 "수해방지나 수자원 확보 외에도 지역경제 기반 창출, 수변 레포츠 기회 확대, 문화콘텐츠 육성, 환경복원 등 국토의 문화적, 미적 가치와 미래 경쟁력을 모두 높이는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4대강을 문화가 흐르는 물길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4대강이 도시의 중심, 국민의 삶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유럽 등 선진국은 수십 년 전부터 수변공간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 프랑스 리옹은 론강 둔치를 8개 테마공원으로 조성했으며, 독일 뒤셀도르프는 라인강변을 따라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쇠퇴한 수변공간을 창조적 미디어 도시로 재생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은 "우리 수변공간은 단조롭고 특색 없는 경관, 접근성 부족, 도시와의 연계 미흡

등으로 주민생활과 격리된 변두리 공간으로 방치돼왔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하천과 주변 공간을 품격 있는 국토환경으로 재창조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강을 도시와 자연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누구나 쉽게 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며, 다양하고 아름다운 수변공간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생태계의 치유와 보존을 통해 순수한 자연의 숨결을 회복시키고, 자연경관과 전통 역사와 문화를 조화시켜 '가보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정명원 위원장)

2월 1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은 '수변 및 인근 산악지형을 활용한 스포츠레저 시설 조성 및 이벤트 개발' '주요 강과 남·서해 연안을 잇는 수상스포츠 코스 조성' '지역과 연계한 테마형 스포츠 관광자원 개발' '정비된 하천변의 시군단위 기본 체육시설 조성'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4대강 유역 수변 체육시설의 건설·운영이 건설부문에서 2011년까지 1조 8528억원의 생산과 7411억원의 부가가치, 1만2440명의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시설운영 부문에서는 2012년 이후 연간 540억원의 생산유발과 290억원의 부가가치, 약 67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유치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별 세미나를 열어 민의를 수렴했다. 3월 18일 나주(영산강), 19일 대구(낙동강), 25일 공주(금강), 26일 충주(한강)에서 각각 열렸다.

영산강 지역 세미나에서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도예술과 고싸움, 강강술래 등 민속문화를 강과 접목해 창조적 문화산업을 만들어내는 '리버노믹스(River-nomics)'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강을 사고하는 '리버 마인드(River mind)' △강을 정신과 소울(Soul)을 가진 실체로 보고 철학·복지·교육적 관점에서 강의 효용을 고민하는 '리버 필(River feel)' △사람들이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리버테인먼트(River-tainment)' 등을 '문화가 흐르는 강' 사업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낙동강 지역 세미나에서는 이상현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가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별신굿놀이 등의 민속연회, 정자와 서원 등의 각종 경승지를 연결한 '스토리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강태호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역시 "낙동강 지역은 풍부한 불교와 유교, 가야문화 자원을 보유한 영남지역의 문화유산 보고(寶庫)다. 각 지역의 역사와 전설, 신화를 발굴하고 자연경관과 연결해 스토리텔링을 연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 지역 세미나에서 강종원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팀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뿐 아니라 금강을 따라 이들 고도를 선적(線的)으로 개발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팀장은 이 밖에도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야간 행사 개발이 필요하다"며 "여름엔 야간 어로, 겨울엔 썰매와 낚시 등 체험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고 어린이 체험 방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안내자 역할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하천과 주변 공간을 품격 있는 국토환경으로 재창조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열린 한강 지역 세미나에서 강진갑 한국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한강 10km 이내 지역에 분포한 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810개), 비지정문화재(7538개), 관광지식정보자원(4484개) 등 모두 1만2832개다. 이 모든 것이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G

글·최호열 기자

4대강 살리기 낙동강(위)·한강 지역세미나.

제 1 화
4대강
살리기
글 이연수 그림 이호

수달 [European otter]
식육목 족제비과의 포유류.
학명 : Lutra lutra 루트라 루트라
천연기념물 제330호
음...

왜가리 아주머니~
여긴 물고기 없어진지
오래됐어요.

왜가리 [gray heron]
황새목 왜가리과
학명: Ardea cinerea
아르데아 시네레아
천연기념물
그러네요…
켁~

인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표토가
흘러들어 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다 배곯아 죽겠어요.

저건!
부우웅~

인간들이 또 무슨 짓을
벌이려는 거지?

아, 맞다. 강바닥을
파낸다던데...
?

이대론 동물이건 사람이건
못산다고 강바닥을 청소해서
물이 깊어지게 한대요.

일단 물은 많아지겠네요!
그럼 먹을 것도
좀 늘어날 테고.

정신이 좀 사납긴
하지만 당분간
참아보려고요.
강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
인간들이 어리석은 짓을
가끔, 아니 자주 저지르긴
하지만...

일단 물을
맑게 해준다니
약간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계속

" 이제, 일할 맛 납니다 "

" 가계에 큰 보탬이 되겠는데요 "

" 가족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세제

2009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 부동산 · 예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 및 지급

-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 방문 · 전자신청
- 신청내용 심사 후 매년 9월 말일까지 지급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지급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88-0060)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실, 재임 중 선물 첫 지상 공개

"각국 정상들의 선물, 국민께 신고합니다"

청와대를 관람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받은 대표적인 선물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선물'에 '정(情)'을 담아 보낸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선물로 대신 보낸다는 뜻이 담겨 있음이리라. 사랑하는 연인끼리,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상대에 대한 마음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전달하고픈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국가원수끼리의 선물 교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외교 현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이들이 주고받는 선물에는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녹아 있는 경우가 많다. 국가원수의 선물에 남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일반 국민들이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외국 정상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어 외국 정상들이 증정한 선물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옮겨 보관해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실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국가적 차원의 공무와 관련해 외국 또는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 중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 또는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 수행 중에 받은 선물은 개인적 선물이 아닌 공적 의미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맡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잘 보관하는 데 치중했다면, 현 정부 들어서는 다양한 경로로 국민에게 선보이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인터넷 홈페이지(www.archi ves.go.kr)를 통해 사진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그 물품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청와대 안내 > 청와대 소개 > 국빈이 남긴 선물' 코너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볼 수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받은 선물의 경우 대표적인 몇몇 선물을 청와대 관람 통로에 진열해 청와대를 방문한 국민이면 누구나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받은 선물을 전시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선물에 담긴 의미를 공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청와대는 이 대통령 재임 중 외국 정상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 선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보관 중인 선물을 청와대가 대여 형태로 빌려 전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 대통령이 받은 선물의 진가를 높이고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들이 준 대표적 선물 9가지를 〈Weekly 공감〉 카메라에 담았다. 이 중 몇몇 실물은 청와대 관람 통로에 전시돼 있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장식용 칼

누가 : 압둘라2세 요르단 국왕

언제 : 2008년 12월 1일 국빈 방한 때

설명 : 아랍문화에서 칼을 선물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우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부터 힘과 권력, 지위와 부의 상징이었고, 반달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칼은 요르단 지역의 독특한 형태다. 오늘날에는 주로 장식용으로만 사용된다.

그림액자

누가 :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언제 : 2008년 11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브라질 공식방문 때

설명 : 브라질에서 손꼽히는 최고 화가의 작품이다.

금제 주전자 세트

누가 :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언제 :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

설명 :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 대통령 취임일에 증정한 선물이다. 화려한 금제 장식으로 마무리된 주전자 세트는 동서양이 잘 어우러진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상징한다.

러시아 책자

누가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언제 : 2008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러시아 공식방문 때

설명 : 러시아 대통령궁의 이모저모가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돼 있다. 책자에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친필로 작성한 '우정'을 표시하는 글귀와 서명이 적혀 있다.

자수정 원석

누가 : 타바레 바스케스 우루과이 대통령

언제 : 2008년 9월 1일 공식 방한 때

설명 : 자수정의 아름다운 빛깔과 자수정 안쪽의 반짝이는 보석은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듯하다.

실크 부채

누가 : 후진타오 중국 주석

언제 : 2008년 5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설명 : 중국에서는 절친한 친구에게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중국의 대표적 특산물인 실크로 만든 부채를 선물한 것은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후진타오 주석의 '우의'가 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아조각

누가 :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

언제 : 2008년 5월 26일 방한 때

설명 : 상아를 이용한 조각품은 희귀성과 그 가치로 인해 최상급 선물로 간주된다.

은제그릇

누가 :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언제 :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

설명 : 재임 중 이명박 대통령과 특별히 가깝게 지낸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온 선물이다. 미국 정상은 외국 정상들에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실용적인 선물을 주로 주는데, 은제그릇과 같은 선물은 미국문화의 실용적인 단면을 잘 보여준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외국 정상을 만나면 볼펜이나 미 국회의사당 그림이 새겨진 나무쟁반, 사진이 든 액자 등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의미가 담긴 선물을 주곤 한다.

하카다 인형

누가 :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언제 : 2008년 12월 1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때

설명 : 일본의 고전인 축하의 노래 '지요노마쓰'를 소재로 한 것으로,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의 인형이다. 노래의 취지는 '새끼 학과 거북이 소나무 밑에서 함께 정답게 평안히 놀고 있다. 그 광경은 부와 행복을 함께하며 길이길이 번영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일본문화에서 학, 거북,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는 축하의 상징이다. G

글·구자홍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여는 충남 태안

태안엔 올해도 꽃이 내렸네

해안선을 따라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총 29개 해수욕장이 즐비한 곳. 태안은 자연휴양림은 물론 사적지, 모감주나무 군락, 동백나무 군락 등 볼거리가 풍부한 여행지다. 2007년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태안은 국내 여행 1번지였다. 사고 이후 자원봉사자 120만명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태안은 1년여가 지난 지금, 2002년 이후 7년 만에 개최하는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계기로 아픔을 씻어내고 재도약을 위한 아름다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태안군에게 2007년은 잊을 수 없는 해다. 청정해역으로 국내 여행지의 상징이던 태안 앞바다가 검은 기름으로 뒤덮여버린 원유 유출 사고로 재앙의 땅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서해 앞바다의 검은 모습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고, 태안 주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아름다웠던 태안은 그렇게 우리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국에서 모인 120만명 넘는 자원봉사자들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손이 트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름때를 닦아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깨끗했던 태안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힘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태안은 어느 지방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응당 지켜야 할 우리의 땅과 바다와 하늘의 상징이 됐다.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27일 동안 열리는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벌써부터 주목받는 것은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우리 손으로 직접 살려낸 태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02년 이후 7년 만에 부활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주제 '꽃, 바다 그리고 꿈'이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선 규모 면에서도 이번 행사는 국제박람회로 손색이 없다. 안면도의 대표적 해수욕장인 '꽃지'의 아름다운 백사장을 배경으로 열리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정부와 국제기구인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가 공인한 국제박람회다. 네덜란드, 일본, 대만, 독일 등 22개국 121개 화훼업체와 각국 정부, 자치단체 등이 참가해 '꽃으로 풍요로워지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7개 전시관과 15개의 다양한 야외 테마정원에 53개 화종 126품종 126만1000여 본으로 꽃의 계절 봄의 절정을 수놓게 된다.

13개 종의 다양한 모양과 색을 가진 조롱박이 터널을 이룬 '조롱박 터널'.

기적의 손으로 일군 꽃밭

메인 전시가 진행되는 '플라워 심포니관'에서는 꽃으로 4개 악장을 절망에서 희망을 일궈내는 과정으로 연출할 예정이다. 주제관 입구에 설치될 12m 길이의 '백만 송이 꽃터널'과 지름 3m의 모래 위에 높이 4.5m로 쌓아올린 대형 꽃꽂이 '기적의 손'은 태안을 되살린 자원봉사자 120만명의 기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플라워 심포니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획전시가 진행될 '꽃의 미래관' '꽃의 교류관' '야생화관' '꽃 음식관' '양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태안의 부활을 알리는 힘찬 태동이 될 것이다.

치류 전시관' 등 7개 실내전시관과 '바다정원' '솟대정원' '일출정원' '꽃과 나비 정원' '분재원' 등 15개 야외 테마공원을 둘러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하지만 아름다운 꽃향기 속에서 봄날의 화사함을 온몸으로 느끼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바쁜 일정으로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면, 불에 타야만 꽃을 피우는 나무 '글래스트리'를 비롯해 러시아 우주정거장에 보내졌다가 우주인 이소연 씨가 지구로 귀환할 당시 가져온 꽃씨로 피운 '우주꽃',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란 카네이션', 13개 종의 다양한 모양과 색을 가진 조롱박이 터널을 이룬 '조롱박 터널', 꽃지 해변의 백사장과 노란 유채꽃밭으로 이어지는 바닷길 정원만큼은 꼭 둘러보는 게 좋다.

태안을 국제꽃박람회만으로 설명하기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섬인 안면도를 비롯해 내파수도, 삼도, 가의도 등 10여 개 섬이 있으며 유일한 해안 국립공원인 태안반도는 울창한 송림과 29개 해수욕장을 갖춰 가는 길마다 오감이 즐거운 곳이다.

비록 기름유출 사고로 힘든 시기를 지나왔지만 태안은 올해를 기점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7년 10월 착공해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인 태안은 2020년까지 총 9조156억원을 투입해 각종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골프장과 문화 테마파크, 병원, 국제 비즈니스 단지 등이 들어서는 첨단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2011년까지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2020년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던 태안은 이제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려 준비하고 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게 마련 아닌가. 긴 겨울을 이기고 눈부신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처럼 태안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태안의 부활을 알리는 힘찬 태동이 될 것이다. G

글 · 이명아 객원기자

Interview

진태구 태안군수

2009년은 태안 재도약의 해!

진태구 태안군수는 '운동화 군수'로 통한다. 기름유출사고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지역 곳곳을 누볐기 때문이다. 진 군수는 "2009년은 태안군에게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라고 강조한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고 있는 태안군이 한 걸음 나아가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서산군에서 복군(復郡)된 지 20년이 되는 올해 태안군은 4월 말부터 복군 2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연중 내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시련을 딛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보은'을 통해 태안 주민들이 활력을 되찾는 기폭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태안군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하게 된 계기도 2002 안면도 꽃박람회를 통해서였다.

진 군수는 "꽃박람회를 통해 '꽃과 바다'가 있는 태안의 관광 이미지를 전 세계에 소개해 관광명소로서의 태안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광거점 도시권을 육성하고, 지역 내 균형 잡힌 관광자원을 개발해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언제라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국제 관광도시 '태안'을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왜 이래 후진국같이…”

불법·폭력시위 이젠 청산해야

KTV 한국정책방송원은 우리나라 시위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큐멘터리 2부작 'KTV 특별기획-다시 법치를 말한다'를 4월 6일과 7일 오후 1시부터 50분간 연속 방영했다. 1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시위인가?'에서는 국내 불법시위의 원인과 사례 분석,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 등에 대해 논했다. 2부 '글로벌 기준, 법질서'는 우리나라 시위문화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을 살펴보고, 해외의 모범 시위 사례를 통해 올바른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3월 7일 서울 도심에서 경찰관들이 시위대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산사고 추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위대가 경찰관 16명을 집단폭행하고 무전기와 안전방패, 카메라를 빼앗아간 것. 시위대 중 1명은 구타한 경찰관의 신용카드를 훔쳐 쓰는 강도 행각까지 벌였다. 공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폴리스라인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것은 기본. 쇠파이프 사용, 공공기물 파괴, 경찰관 집단폭행과 절도 등 불법·폭력 시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불법·폭력 시위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총 3조751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불법·폭력시위 집단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월 6일과 7일 오후 1시부터 50분간 방영된 2부작 다큐멘터리 'KTV 특별기획-다시 법치를 말한다'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기획됐다.

6일 방영된 1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시위인가?'에서는 국내 시위문화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경찰을 포함해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사고는 불법·폭력 시위가 낳은 참사이자 불법행위의 악순환 구조가 낳은 가슴 아픈 결과라고 강조했다. 즉 불법·폭력 시위가 발생했을 때 법 집행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집단행동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 시위대가 더 심한 불법·폭력 시위를 자행한다는 것.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법은 사회질서를 세우는 근간이고, 공권력은 민주질서를 수호하는 보루”라며 “정치적,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인식이 계속되면 이번 용산사고와 같은 참사는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공권력 무시가 '용산' 같은 참사 일으켜

또 생활에서의 공권력 무시 풍조도 심각한 수준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순찰차가 지나가도 비켜주지 않는 승용차, 경찰관에게 소리치고 시비를 거는 취객, 막무가내로 떼쓰는 민원인 등은 이미 일상다반사가 됐다.

7일 방영된 2부 '글로벌 기준, 법질서'는 우리나라 시위문화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을 부끄러울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특파원인 에반 람스테드는 “한국에는 시위가 지나치게 많다”며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단지 시위하는 것을 좋아해 시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토신문 서울지국장인 스미다 다쿠시는 “지난해 촛불시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이런 나라에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런 불법·폭력 시위는 외국 원정길에 오르기도 했다.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홍콩으로 간 WTO 반대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회의장으로 진출하려 하자, 홍콩 경찰과 시위대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홍콩 경찰은 강경진압으로 맞섰고, 시위대 1000여 명은 전원 연행됐다. 이 같은 사태는 2006년 미국 시애틀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원정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협상장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연행된 것이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폴리스라인 넘으면 위법" 선진국 강경 대응

미국 뉴욕주 경찰 마이클 코피는 "폴리스라인을 넘어 시위를 한다면 위법이며, 경찰은 합당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악관 앞에서 피켓을 든 시위대를 수시로 볼 수 있듯, 미국은 평화집회의 경우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시위는 단호히 응징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는 일본이나 호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법치가 제대로 구축된 선진국이라면 모두 같다.

시위가 폭력적 성향을 띠면 처벌 기준은 더욱 엄격하다. 지난해 9월 1일 존 매케인 후보의 공화당 전당대회 때 열린 반전시위에서는 시위가 폭력적 성향을 띠자 최루가스와 플라스틱 수갑이 동원됐다. 3일 후 열릴 예정이던 반전시위대의 거리행진은 기마경찰대를 투입해 차단했다. 불법 전례가 있는 단체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한 처리였다.

이처럼 2부에서는 세계 각국이 불법·폭력 시위에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집회, 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돼야 한다"며 "불법·폭력 시위 집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담당인 김진웅 책임프로듀서는 "취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권력 실추가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집회와 시위 역시 소통의 한 방식인데, 그 소통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바로 법"이라고 강조했다.

'KTV 특별기획–다시 법치를 말한다'는 4월 11일과 12일 오후 6시 40분에 재방송된다. KTV 홈페이지(www.ktv.go.kr)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다. G 글 · 이지은 기자

볼 만한 프로그램

TV 시간여행/ 매주 금요일 18:20~19:00

국가 발전 과정과 국민들의 생활변천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 주제에 맞는 시대별 영상 자료를 재구성해 그때 그 시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 4월 10일 78회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마다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줬던 스포츠 경기 장면들을 모았다. 지금의 김연아 선수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했던 왕년의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 아련한 옛 기억에 취해보자.

힘내라 대한민국/ 매주 수요일 23:00~23:30

국민과 정부, 근로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및 나눔 현장을 발굴함으로써 국민에게 위기극복의 희망과 자신감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4월 8일 14회에서는 '농업뉴딜, 귀농' 편이 방송된다. 최근 은퇴자, 실직자, 자영업자의 귀농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귀농 농가를 소개한다. 귀농자 교육훈련, 농지·주택 융자사업 등 귀농 지원 정책도 알려준다.

KTV시네마/ 매주 금요일 22:00~24:00

주옥같은 한국 고전 영화를 다시 본다. 'KTV시네마'는 4월 10일 신상옥 감독의 1961년 작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사진)를 방영한다. 이 작품은 원작소설의 느낌을 가장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머니 역 최은희, 선생님 역 김진규, 식모 역 도금봉의 젊을 적 모습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4월 17일에도 신상옥 감독의 1961년 작 '상록수'를 방영할 예정이다.

서울 7개 고용지원센터서 미니취업박람회

"수요일 오후에 면접보러 오세요"

취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현철(47) 씨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를 찾는다.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청계천 잡페어(Job Fair · www.jobfair.or.kr)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이 행사에는 그동안 2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해 6000여 명의 구직자가 면접을 봤으며, 600여 명이 채용됐다. 이 행사는 구인, 구직뿐 아니라 직업교육 및 취업컨설팅, 창업상담 등도 진행하는 등 취업 희망자들에게 적잖은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4월부터는 알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더 늘었다. 서울지방노동청 산하 7개 서울지역 고용지원센터가 매월 첫 번째 수요일마다 '미니 취업박람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장의성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청계천 잡페어가 매월 한 번뿐이라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행사가 청계천 채용박람회와 더불어 구인·구직자들의 '신속한 채용' '신속한 취업'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미니 취업박람회의 의미를 밝혔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직업교육이나 취업컨설팅 같은 부대 행사는 없지만 구인을 하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실속 있는 '취업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인업체 담당자가 구직자를 현장에서 직접 면접해 채용을 결정한다.

현장 면접에 참여하는 기업과 채용 정보는 매월 첫째 월요일에 서울지역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청계천 잡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행사 전 금요일까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김재훈 씨는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마다 구인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직 희망자들은 미리 확인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뽑는 센터를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 고용지원센터는 4월 12일까지 지난 1년 동안 청계천 잡페어를 통해 취업했거나 이력서 컨설팅을 받은 후 서류 합격률이 높아진 사례,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진로를 결정한 경험 등을 담은 수기 또는 동영상을 응모한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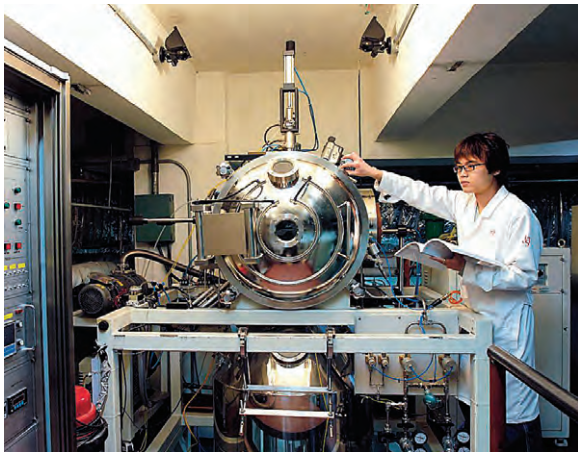
글 · 최호열 기자

서울지역 고용지원센터 안내

센터명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http://seoul.jobcenter.go.kr	02-2004-7301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http://seoulgangnam.jobcenter.go.kr	02-3468-4799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http://seouldongbu.jobcenter.go.kr	02-2142-8924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http://seoulseobu.jobcenter.go.kr	02-2077-6000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http://seoulnambu.jobcenter.go.kr	02-2639-2300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http://seoulbukbu.jobcenter.go.kr	02-2171-1700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http://seoulgwanak.jobcenter.go.kr	02-3282-9200

조영철 기자

첨단 연구장비 1만대 공동이용 지원사업

100만원으로 5억원 절감 효과 "서두르세요"

중소기업청은 7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첨단 장비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기 생산업체 (주)아이엠바이오는 신제품 샘플 제작에 필요한 고가의 최첨단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대신 연세대의 연구장비(SMD조립시스템, 레이저커팅머신 등)를 활용했다. 이로써 첨단 연구장비 구입비 등 5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장비 이용료 400만원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00만원을 지원받아 실제로는 100만원밖에 들지 않았다. (주)아이엠바이오는 이렇게 만든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기기 품질인증을 받아 매출액이 2배 증가했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연구개발장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를 임대해줘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서울대 등 86개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 1만여 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07년 930개 업체가 6150건의 장비 이용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해엔 1641개 업체가 1만8831건의 혜택을 받았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승인통보를 받으면 바우처 구매 신청을 하고, 기업부담금 25%를 전담기관의 사업비 전용통장에 입금하면 된다. 총비용이 100만원이면 기업은 25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 75만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최대 50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기술협력지원과 고근모 사무관은 "3월부터 76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며 "기업체들의 호응이 좋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일찍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지원과 042-481-4443. G

글 · 최호열 기자

2009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역	기관
서울	동국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요업기술원
부산 울산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테크노파크, 울산대,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대구 경북	경북과학대학, 경북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운대, 구미1대학,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한의대, 안동대, 영진전문대학,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 한국폴리텍6대학
광주 전남	광주테크노파크,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여수), 조선대, 한국광기술원, 한국폴리텍5대학
제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전북	전북대 자동차부품금형기술혁신센터, 전북대(공동실험실습관), 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경남	경남대,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경기	경기공업대학, 경원대, 경희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명지대, 방재시험연구원, 섬유소재연구소, 성균관대, 수원여자대학, 안양지식산업진흥원, 한경대,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 한양대
인천	인천대, 인하대,
대전 충남	건양대, 공주대, 나노종합팹센터, 남서울대, 순천향대, 자동차부품연구원, 충남대, 충남동물자원센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한국화학연구원,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강원	강원대, 강원테크노파크(신소재클러스터)
충북	영동대, 충북대

스타가 들려주는 발레이야기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업그레이드

해설이 있는 발레

일시 4월 10(금)~11일(토), 10월 9(금)~10일(토), 11월 27(금)~28일(토).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가격 R석 1만5000원, S석 1만원, A석 5000원
문의 02-587-6181, www.kballet.org

발레는 엄숙하고 딱딱하다?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는 발레에 대한 이런 편견을 벗고 대중과 호흡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1997년부터 해마다 이어져왔다. 현대와 고전을 망라하는 다양한 레퍼토리에 해설가들의 재미있는 입담을 더해 발레를 모르는 일반인도 지루해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김주원, 장운규, 김지영 등 국립발레단의 주역이자 스타 무용가들이 해설자로 나선다. 또 직접 마임 시범을 하기도 하고, 백스테이지의 이야기도 진솔하게 털어놓을 예정이다. 공연 후 사인회와 그들의 자필 사인 토슈즈 추첨 및 선물 등도 기대해볼 만하다. 한편 세 번의 연작 공연을 모두 관람하는 관객은 2회 가격에 3회를 볼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공연 일정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 일정

김주원의 '우리 세계여행 한번 떠나볼까?'	
4월 10일(오후 7시 30분), 11일(오후 3시)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각 나라의 색채를 담은 발레 공연들을 선보인다. 각국의 의상, 소품, 영상 등도 볼거리.
장운규의 '이건 어디서 나온 거지?'	
10월 9일(오후 7시 30분), 10일(오후 3시)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발레 작품의 스토리가 문학이나 오페라에서 나온 것을 모아 그 기원 및 배경을 설명.
김지영의 '모던 발레?'	
11월 27일(오후 7시 30분), 28일(오후 3시)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어렵게만 느껴지는 모던 발레를 안무가의 시선에서 설명한다. 발레리나 김지영이 직접 연출.

창작합창축제

일시 4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5000원, B석 1만원
문의 02-587-8111, www.nationalchorus.or.kr

국립합창단의 126회 정기연주회로 나인용, 박정선, 이동훈 등 유명 작곡가들이 우리의 정서가 담긴 시와 민요에 음악적 감흥을 더한 창작곡들을 선보인다. '풍경소리' '다시 부르는 노래' '목련꽃' '산유화' '자화상' '서시'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1973년 창단된 국립합창단은 국내 전문합창단의 효시로 고전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양 주엽고등학교 합창단과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참여한다. 우리나라 합창단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댄스뮤지컬 '15분 23초'

일시 4월 17(금)~23일(목)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7시
장소 LG아트센터
가격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02-523-0985~7

댄스와 뮤지컬의 환상적인 결합. 서울예술단의 '15분 23초'는 수준 높은 무용과 노래로 한층 전문화된 복합장르의 진수를 보여준다. 공연 하루 전 리허설 때 무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다리를 다친 무용수 승희와 그녀를 좋아하는 스태프 규완의 10년여에 걸친 사랑을 아름답게 담았다. 장은정(현대무용), 손미정(한국무용), 우현영(재즈댄스) 등 각 분야 전문가 3인이 안무를 맡았다. 춤의 다양한 모습을 비교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다. G 정리 · 이지은 기자

Korea Sparkling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KOREA FLORITOPIA 2009
http://floritopia.or.kr | http://flower-expo.kr
*정부 · AIPH 국제공인박람회
꽃, 바다 그리고 꿈
2009. 4. 24(금) ~ 5. 20(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 · 수목원
Flower, Ocean & Dream
후원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태안군,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사)한국화훼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